



미래를 우리 손으로

E-mail : presssyj@pukyong.ac.kr
facebook : www.facebook.com/pressbkj

부경대신문

다음 발행일은
8월 26일(월)입니다

2019년 6월 3일 월요일

The Pukyongdae Shinmun / 발행인 총장 김영섭 / 주간 오창호 / 편집국장 신유진 / 편집국 629-6922 / FAX 626-2169 / 인쇄처 부산일보사 <증강호>

지면
안내

3면 우리대학도 건물 외벽
붕괴 위험성 제기

4면 제23회 백경대동제
예산 논란 일어나

8~9면 민족의 열에
아로새겨진 희생을 돌이키다

11면 도 넘은 호객행위,
방법은 없나?

총학생회 및 각 단과대학 공약 이행 중간상황은?

총학생회

‘리액션’ 총학생회(총학)는 ‘풍성한 복지’ 부문에서 시기상 명절 귀성길 지원 제도 공약을 제외한 △보건진료소 활성화 △예비군 셔틀버스 운행 △화장실 물레카메라 순찰 등을 이행했다. ‘행복한 문화’ 부문에서는 △문화의 날 △대동제 △핑크캠퍼스 활성화를 이행했으며 옐로우 캠퍼스는 2학기 예정, 국토탐방 추진은 아직 미이행 상태다. 또 ‘더 나은 내일’ 부문에서 시험 기간 강의실 개방 및 도서관 규찰은 이행했으며, 취·창업 관련 설명회 및 박람회 개최 공약 중 취·창업 관련 설명회는 진행했지만, 박람회는 교내기관과 협력해 2학기에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진료소 활성화를 위한 여학생품·의약품 지급 등을 학생들에게 홍보하며 이용자 수를 늘리고 있다. 예비군 셔틀버스 운행은 예비군연대에서 학교 홈페이지 내 신청 버튼의 생성으로 학생들이 편하게 이용 가능하다. 화장실 물레카메라 순찰은 부산경찰청 주최 불법촬영기기 순찰단에 가입했으며, 탐지기를 구매해 각 단과대학 및 학과와 협업해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우리대학 쪽문 확장, 공학관 앞 제2의 노르웨이 숲 조성 등 학교시설 개선 및 보수를 완료했다.

한편 시험기간 강의실 개방에 대해 우리대학 총학 최우현(토목공·2013) 회장은 “학사관리과의 협조로 총무관(B13) 4202호를 이용할 수 있다”며 “지난 시험기간에는 제대로 홍보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카드뉴스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이번 대동제에 대해 최 회장은 “예년의 경우 교내기관의 협력기금 전달로 원활한 행사가 가능했으나 올해는 사상상 협력기금이 전달되지 않아 힘든 부분이 많았다”며 “하지만 중국 무역상과 거래하는 등 많은 방법을 동원해 축제 진행을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경영대학

경영대학(경영대) ‘두드림’ 학생회는 △물품 대여 △응급키트 준비 △기존 행사 활성화 등의 공약을 이행했다. 경국야생과 강연 및 설명회, 문화의 날 행사 등은 2학기에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5월에 치러진 경국제전은

확실한 복고 콘셉트와 함께 보물찾기, 박 터뜨리기 등 다양한 종목으로 구성됐다. 또한 △후시딘 △밴드 △화상연고 등 다양한 약품이 구비된 응급키트는 단과대학실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명록 작성 후 이용할 수 있다. 강연과 설명회는 본래 진행했던 공기업이나 인기 높은 직업군 위주로, 올해 역시 같은 방향으로 계획 중이다.

마지막으로 경영대 오유경(경영·2016) 회장은 “하나의 행사를 실현할 때마다 큰 산을 넘는 것 같아 힘들면서도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언제나 쉽게 문을 두드릴 수 있는 ‘두드림’ 학생회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공과대학

공과대학(공과대) ‘해시태그’ 학생회는 △소통함 개설 △장부 투명화 △문화의 날 및 응원전 개편 등을 이행했으며, 공대 체전 활성화는 2학기에 진행할 예정이다.

무료프린트실 이전은 현재 공학1관(E13)의 학생회관 안공 후 자리를 확보해 이전 예정이며, 건물 내 와이파이 설치의 경우 학기 초 불량 상태를 조사해 행정실에 알린 상태다. 또한 SNS를 통해 △행사 정보 △활동 보고 △장부 감사 결과 등의 정보 제공과 △가온관(B21) △누리관(A13) △공학1관의 소통함 개설로 학우들과 소통하고 있다. 또한 전체 대표자 회의에서 감사국장과 예결산 감사소위원장을 인준해 매 분기 학과 장부 감사를 진행한다.

부분 이행한 공모전, 취·창업 및 장학 지원 확대와 홍보 활성화에 대해 공과대 최혁준(고분자공·2014) 회장은 “학생들의 원하는 프로그램 개설과 홍보가 의도였으나 예산 책정과 수요 확보 등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진행이 힘들게 돼 홍보에 초점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아쉬운 공약에 대해 최 회장은 “문화의 날 개편은 SNS 이벤트로 학생들끼리 소통 문화를 만들고자 했지만, 기대보다 저조한 참여율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아쉬움이 남는 공약도 있지만 만족하고 응원해준 학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잘못한 부분이 있을 때는 따끔한 훈계와 또 아낌없는 격려 말씀 부

탁드리고 앞으로 공과대 학생회 행보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글로벌자율전공학부

글로벌자율전공학부(글자전) ‘리본’ 학생회는 △마일리지 제도 도입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개설 △각종 학부 시설 점검 및 보수 등을 이행했고, 글자전 카페 활성화는 아직 미이행 상태다. 이에 글자전 김상수(글로벌자율전공·2015) 회장은 “카페는 재학생들을 비롯해 입시를 고민하는 수험생들에게 학생회비, 학부 행사 일정 등 다양한 정보 제공 공간으로써 학부 관심도를 높이는 공간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자료들을 정리하고 방학 중에 실시해 관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각종 학부 시설 점검 및 보수는 △전산실 컴퓨터 △강의실 문손잡이 △전산실 및 과방 도어락 등을 설치 및 보수했다. 한국 학생과 외국 학생 교류 확대는 홍보를 통해 유학생들에게 학과 행사 참여를 유도하고 4월부터 유학생, 한국 학생들과의 언어 교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마일리지를 적립해 행사 참여율을 높이는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김 회장은 “이번 연도에 학부생들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복학생들의 참여로 인한 증가라고 생각한다”며 “마일리지 적립을 통해 혜택받는 활동이 2학기에 있으므로 2학기에는 제도로 인한 참여율이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수산과학대학

수산과학대학(수과대) ‘시그널’ 학생회는 △생일이벤트 △무료프린트 사업 확대 △물품 대여 등의 공약을 이행했다. 반면 E-sports 대회는 2학기에 피파온라인, 리그오브레전드 등 인기 게임을 선별해 실시될 예정이며 헌내기 배움터는 방학 중, 수과대의 밤은 6월 체육대회가 끝난 후 실시될 예정이다. 그 외 다른 행사들도 회의 진행 중이다.

생일이벤트 공약은 매월 생일인 수과대 학우 한 명을 주점으로 선별한 다음, 시간과 장소 등을 정해 깜짝 이벤트를 진행한다. 무료프린트 사업은 한 대의 프린트기를 두 대로 늘리고 학우들의 접근성이 쉬운 곳에 배치했다. 물품 대여 역시 보조배터리, 위생용품 등을 추가해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동제에 대해 수과대 황종욱(수산생명의·2014) 회장은 “수과대 학우들을 위해 버스 및 자리를 제공했고 여러 음식을 무료로 제공했다”며 “설문조사 실시 결과 105명의 학우 중 2.9%만 불만족에 응답했으며, 많은 학우들이 만족스러워 한다는 결과를 들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황 회장은 “더욱더 재밌는 행사와 복지를 제공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예산 부족 등의 한계로 마음만큼 이루지 못해 아쉽다”고 전했다.

인문사회과학대학

인문사회과학대학(인사대) ‘과랑’ 학생회는 2학기 인사대 체육대회를 제외한 △물품 대여 △정수기 일회용 컵 배치 △인사대 게시판 개설 △시험 기간 응원전 개선 등 공약을 대부분 이행했다.

정수기 일회용 컵 배치 공약은 갑자기 컵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나 페이스북 메시지로 학우들에게 상황을 전달받고 있으며, 인사대 게시판은 인사대 학과 홍보물, 지역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홍보물 등을 중심으로 부착하고 있다. 시험기간 응원전 개선 역시 학우들의 다양한 선호 반영과 수량 확대 후, 2곳에서 응원전을 실시해 최대한 많은 학우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2학기에 개최될 체육대회에 대해 인사대 김희창(정치외교·2014) 회장은 “인사대 학우들의 즐거움과 단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인사대 전통문화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연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자과대) ‘무드’ 학생회는 △무료프린트 △문화의 날 이벤트 △편의용품 대여 등의 공약을 이행했다. 편의용품 대여 공약 중 미니 선풍기 대여는 5월 30일(목)부터 진행하며, 담요는 날씨가 쌀쌀해지는 10월부터 대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헌내기 배움터는 여름방학 기간에 진행할 예정이다.

편의용품 대여와 무료프린트 학생 이용률에 대해 자과대 손러욱(해양스포츠·2014) 회장은 “편의용품 대여는 전체 학생 인원의 약 30%, 무료프린트 사업은 전체 학생 인원의 약 50%의 이용률을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손 회장은 “앞으로 학우들

을 위해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는 행사와 더 많은 복지 준비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총동아리연합회

총동아리연합회(총동연) ‘라운’ 학생회는 △물품 대여 △행정 절차 간편화 △동아리방 난방문제 보완 등의 공약을 이행했다. 반면 위드센터 스터디룸 개설과 한술관 계시관 확보 및 동아리방 배치도 제작 공약은 현재 공간 확보를 위해 관련 동아리 및 학교와 논의 진행 중이다. 주의감면제도 공약의 경우 동아리에 대한 쉬운 주의감면은 남용될 우려가 있기에 현재 교내 환경정화 및 봉사를 통해 주의를 1회 감면할 수 있도록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행정 절차 간편화를 위해 서류 내 불필요한 부분을 수정하고 재배포해 서류 획일화를 진행했으며, 예산 지원에 있어 모호한 규정을 재편성했다. 동아리방 난방문제는 현재 한술관(E16) 내 일부 동아리에서 시험 사용 중이며 추후 온풍기 사용이 안전과 기타 문제에 결함이 없으면 모든 동아리방 온풍기 사용을 허가할 예정이다.

한편 아쉬운 공약에 대해 총동연 이창원(전기공·2014) 회장은 “대여 물품의 경우 학우들에게 추가 물품을 건의받았으나 예산상 문제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해 아쉽다”고 전했다.

환경해양대학

환경해양대학(환경대) ‘어우름’ 학생회는 △무료프린트 △물품대여 △문화의 날 이벤트 등 공약을 대부분 이행했다. 아직 미이행된 분기별 학생회 설문조사는 한 학기가 끝난 후 시행할 예정이다. 문화의 날 이벤트 공약의 경우 3월은 SNS 이벤트로 문화상품권 지급, 4월은 시험기간 응원전으로 대체했다. 물품대여 사업은 △보조배터리 △고대기 △세면도구 등 다양한 물품을 대여 중이며,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개설해 각종 문의 사항에 답변함으로써 학우들과 소통하고 있다.

또한 물레카메라 순찰 여부에 대해 환경대 김형준(에너지자원공·2014) 회장은 “지난 4월 26일(금) 남부경찰서와 함께 총무관(B13)과 환경해양관(B14) 전 층 남자·여자 화장실 및 샤워실을 순찰을 진행했다”며 “다행히 물레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윤주 기자
pressly18@pukyong.ac.kr

교원 연구년으로 인해 비어버린 시간표

100% 대체하라 지시하지만, 내부사정에 따라 폐강될 수도...

우리대학 교원의 연구년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업 공백은 강의 대체자를 통해 메우고 있지만, 일부 학우들은 학부(과) 사정에 따라 개설되지 않는 전공필수 강의로 인해 졸업을 걱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년이란 학교와 같은 연구 기관에서 연구자의 재충전 기회와 자유로운 연구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1년 정도씩 주는 휴가다. 우리대학에서는 교육공무원 임용령과 부경대학교 교육공무원 인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강의와 학생지도 등 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으로서 수행하는 일상 업무의 면제를 통해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일정한 기간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원 연구년을 실시한다. 또한 부경대학교 교원 창업 관련 규정에 따라 본교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교원에게 창업 후 창업 활동에 전념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원의 창업 연구년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원 교원의 총인원은 매년 예산 사정과 학부(과)의 운영을 고려해 전체 교원의 15% 이내에서 선발하며, 한 학부(과)에서 2명 이상의 교원이 동시에 △연구년[I] 교원 △연구년[II] 교원 △창업연구년 교원 등에 해당할 때, 그 수가 학부(과) 전체 교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연구년을 보낸 교수는 결과보고서 혹은 학술지 논문을 제출해야 하며 올해 우리대학의 교원 연구년을 보내고 있는 교원은 총 39명으로 이는 우리대학 전

체 교원의 약 6%를 차지한다.

우리대학 김창경 교무처장은 교원의 연구년에 대해 “교무처장 이전에 교수로서 연구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처장은 “모든 분야가 그럴겠지만 특히 이공계열 등의 분야에서는 새로운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교원이 연구 없이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후에 자신의 연구 분야에 대한 추세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며 “교원들의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새로운 연구를 하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교원 연구년은 교원에게 좋은 취지의 제도지만 학우들에게는 졸업에 필요한 전공필수과목의 폐강으로 전공 학점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익명을 요구한 우리대학의 A 학우는 “교수님의 연구년으로 인해 전공필수 과목이 폐강됐다”고 말했다. 이어 A 학우는 “다른 과목들은 강의 대체자가 선정됐지만 폐강된 과목의 경우 특수한 분야로 해당 분야의 적임자를 찾을 수 없어 폐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졸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학년일수록 전공필수과목에 공백이 생기는 것이 걱정된다”고 밝혔다.

각 학부(과)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공필수과목의 수강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졸업을 코앞에 뒀음에도 불구하고 교수의 연구년으로 인해 전공필수과목이 폐강된 경우, 졸업을 연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졸업까지 여유

가 있더라도 해당 학년에 맞는 수준의 전공과목을 수강하지 못하는 것은 전공 학습 흐름에 방해가 된다. 또한 고학년과 저학년이 성적경쟁을 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학우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며 강의 정원이 초과로 인해 다음 학기에도 해당 과목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김 교무처장은 “본부에서는 학부(과)에 교원의 연구년으로 생기는 강의를 100% 대체하라고 지시한다”며 “이러한 지시를 하지만 학부(과)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몇 개의 과목은 폐강될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교원의 연구년으로 인해 학생이 졸업을 미뤄야 하는 상황이 외서는 안될 것”이라며 “졸업 등의 특수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반드시 해당 전공필수 강의를 개설해 학생의 졸업에는 문제가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처장은 “개인적으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전공필수 과목의 수를 줄이는 것은 물론 전공필수 과목의 학기를 구분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존까지 강의 대체자는 교수가 해당 분야의 적임자를 초빙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정해왔다. 하지만 올해 8월부터 시행될 강사법으로 인해 앞으로 강의 대체자는 공개채용을 통해 선정될 것이라 예상된다.

이지수 기자
press1s18@pukyong.ac.kr

용당캠퍼스, 대연캠퍼스로 일부 이전

오는 6월 중에 준공되는 공학 2관에는 현재 용당캠퍼스 공간의 약 30%가 이전돼 오는 2학기부터 이용될 예정이다. 이전 학과는 △냉동공조공학과 △기계시스템공학과 △기계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 △금속공학과 △재료공학과 △신소재시스템공학과 △고분자공학과 △화학공학과 △공업화학학과 △인쇄정보공학과로 총 11개이며, 이들 학과의 △교양 강의실 △실험실 △연구실 △준비실 △세미나실 등이 이전될 계획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우는 “지금까지는 대연캠퍼스와 용당캠퍼스 두 곳에서 수업해 불편했지만 2학기부터 공학 2관으로 이전함에 따라 보다 편해질 것 같다”며 캠퍼스 이전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공학 2관의 면적은 공학 1관의 약 60%로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11개 학과의 모든 시설이 이전되지는 못한다. 따라서 용당캠퍼스에는 여전히 공과대학 행정실을 비롯해 11개 학과의 규모가 큰 시설이 잔류하게 된다. 우리대학 기획과 배익성 주무관은 “전체 학생들에게 학업과 관련된 모든 것을 대연캠퍼스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싶었지만 공간이 부족해 불가능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용당캠퍼스에도 수업을 위한 강의실이 남을 것이기에 공학 도서관과 광개토 기숙사, 고시원을 지금처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학 2관은 11층 규모의 건물로 모든 층이 공학 1관과 복도로 연결될 예정이다.

김다은 기자
presskdu19@pukyong.ac.kr

우리대학,

스마트양식 개발 사업에 참여

우리대학이 국내 최초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참여한다. 스마트양식이란 기후와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양식 시스템을 가리킨다. 우리대학은 올해 6월 △부산시 △국립수산물연구원 △민간참여법인 간 사업추진협약(MOU)을 맺은 후, 스마트양식 상용화에 대해 연구할 계획이다.

해당 연구는 우리대학과 해양수산부의 연합으로 진행되며 △첨단양식기술개발 △수산업에 IT융합기술 적용 △스마트양식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약기간 동안 기간중에 위치한 우리대학 수산과학연구소 부지를 해양수산부에 무상 대여한다. 또한 부지는 시범 양식장을 조성해 협약 맺은 각 단체들과의 연구시설로 활용할 예정이며, 시범양식장 환경 조성에는 △수산과학대학 △공과대학 △환경해양대학의 교수와 학생이 참여한다. 이 사업에서 양성된 인력들은 스마트양식 상용화 후 해당 산업의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다.

우리대학 수산과학연구소 남택정 소장은 “지구온난화와 환경변화의 여파로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스마트양식 시스템이 계속해서 발전될 추세”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스마트양식의 막대한 비용과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희수 기자
presschs19@pukyong.ac.kr

창과 방패

잠들지 못하는 그대들을 위하여

‘피곤하다’ 아마 보통의 학생들이 입에 달고 산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일 것이다. 필자는 이렇듯 사람들이 지속적인 피곤함을 느끼는 큰 이유 중 하나를 ‘수면 부족’으로 꼽고자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수면 부족은 선진국의 유행병”이라고 선언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한국 또한 ‘잠 부족 국가’다. 2016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에서 한국인은 하루 수면 시간 7시간 41분을 기록했다. 평균(8시간 22분)보다 41분 부족한 수치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였으며, 직장인은 수면 시간이 6시간 6분에 그쳤다. 대학생도 직장인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

필자 또한 수면 시간이 적은 편에 속한다. 새벽 3시, 4시쯤 잠들어 아침 일찍 일어나 오전 수업 갈 준비를 한다. 평균적으로 5~6시간 정도를 자는 것이다. 필자 주위의 친구들 또한 필자와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이러한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피곤함은 몸에 축적되고 무기력함과 우울함까지 느끼게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생활 습관까지 엉망으로 만들어 건강한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전문가들은 하루 7~9시간(평균 8시간) 정도의 수면을 권장한다. 그러나 각종 기관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를 살펴보면 한국인의 절반은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수면 시간이 부족한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이러한 반응 뒤에는 성공을 향한 욕망이 있었다. SM C&C 플랫폼이 실시한 수면 부족 관련 조사에 따르면 ‘밤잠을 줄여서라도 성공하고 싶다’는 답이 20대에서만 66%가 나왔다.

최악의 취업난 시대를 겪고 있는 지금의 20대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실로 굉장할 것이다. 좋은 학벌과 여학 성적 등 취업을 위한 조건이 충분함에도 일 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대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가 수면을 줄이고 소위 말하는 ‘스펙’을 쌓는 것이다. 그런 그들에게 무작정 ‘수면 부족이니 수면 시간을 늘려라’ 하는 것은 비약에 가깝다.

세계적 신경 과학자이자 수면 전문가 매슈 워커는 “사람은 일부러 수면 시간을 줄이는 유일한 종(種)”이라며 사람들의 수면 부족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필자 또한 현시대를 살아가고



신유진
편집국장

있는 20대로서 대학생들이 겪는 수많은 부담감과 불안감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 수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스트레스 때문일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는 새벽만 되면 물밀 듯 밀려오는 수많은 걱정 때문일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필자는 글의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조차 잠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전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어쩌면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전해주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오만함일 것이다. 그저 그들이 마음 편히 푹 잠들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우리대학도 건물 외벽 붕괴 위험성 제기

작년 벽돌 및 타일 마감재를 사용한 건물 외벽 정밀점검

지난 5월 21일(화)에 발생한 부산대학교(이하 부산대) 미술관 붕괴사고로 인해 우리대학 학우들은 우리대학 건물 외벽의 붕괴위험을 지적했지만, 시설과에서는 연 3회의 안전점검은 물론 부산대 사고 이후 즉시 크레인을 통한 긴급 정밀점검을 하는 등 건물 외벽 점검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21일(화), 부산대에서 미술관 건물 외벽이 붕괴돼 건물 밑에서 업무 중이던 60대 환경미화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다수의 전문가와 언론은 “이 사고는 학교 측의 부실한 관리가 원인”이라 지적했으며 실제 부산대 측은 언론을 통해 “그동안 건물 외벽에 균열이 발견되지 않아 내부 구조물의 강도 및 부식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특별한 관리가 없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건물의 △외벽 △유리 △마감재 등의 비구조재는 점검 시스템에서 제외된다. 이에 부산대 미술관은 건물의 벽돌 마감재 부착이 부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시행한 점검에서 건물안전등급 B등급을 받아 건물에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대 붕괴사고 후, 우리대학 학우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건물

외벽 붕괴와 같은 건물 안전 전반에 대한 불안감을 내비쳤다. 우리대학 유수현(통계·2018) 학우는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대학의 오래된 건물은 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특히 자연과학2관(C24)과 장영실관(C12)은 한눈에 봐도 낡은 것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또한 “얼마 전 부산대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우리대학도 이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시설물의 안전등급기준은 A에서 E로 나뉜다. △A등급은 가장 안전한 상태 △B등급은 경미한 손상의 양호한 상태 △C등급은 보조 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 △D등급은 주요 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 상태 △E등급은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다. A에서 C등급은 약간의 보수공사로 원래의 기능을 할 수 있으나 D와 E등급은 건물을 즉시 폐쇄하고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우리대학 건물의 안전등급은 대연캠퍼스의 46개 건물 중 △A등급 13개 △B등급 32개 △C등급 1개로 이 중 부산대 미술관과 같이 외벽을 치장 벽돌로 마감한 건물은 △향파관(A15) △나래관(A23)

△나비센터(B12) △자연과학1관(B15) △장영실관(C12) △해양공동연구관(C13) 총 6개다.

우리대학은 2018년 4월, 외벽의 마감재가 벽돌 혹은 타일인 건물 32개 동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했다. 이때 실시한 안전점검에서는 지상에서 사람이 올라다보는 수준의 육안 점검이 아닌 크레인 장비를 이용, 상층부까지 접근해 건물 외벽을 직접 두드려보고 들뜸 혹은 탈락 위험 여부를 조사하는 정밀점검이 이뤄졌다. 균열이 발견된 경우 코킹(판의 이음부 혹은 가장자리 등을 쪼아서 틈새를 없애는 작업)을 통해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도 했다. 우리대학 시설과 강설훈 주무관은 “6월 21일(화) 오후, 부산대의 사고 소식을 들은 즉시 학교 건물의 육안 점검뿐만 아니라 점검 용역업체의 크레인 장비를 통해 건물 외벽을 두드리는 등의 정밀한 점검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주무관은 “이 같은 긴급 점검 외에도 연 3회 정기점검 또한 진행한다”며 “위험 요소는 발견 즉시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우리대학은 2017년 가을부터 2018년 초에 나비센터 건물 1층 외벽에 금이 가

고 태풍 및 강풍으로 인해 향파관의 지붕 마감재가 일부 탈락하는 일이 발생했다. 사고 후 우리대학 시설과에서는 나비센터와 향파관의 보수공사 및 정기점검을 진행했고 지난해 가을, 태풍이 닳쳤을 때는 건물 외벽 붕괴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우리대학은 건물 붕괴의 또 다른 위험 요소인 지진에 대한 대비도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 주무관은 “재작년 포항 지진 이후 내진보강사업에 대한 예산이 대폭 확대돼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웅비관(A12) △디자인관(A22) △충무관(B13)에 내진보강공사를 진행했다”며 “이 공사는 공사의 필요 여부 등을 관련 외부전문가와 철저히 검토한 뒤 진행됐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강 주무관은 “이번 여름방학에는 △자연과학1관(B15) △자연과학2관(C24) △나비센터(B12)에 내진보강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라 덧붙였다.

또한 우리대학은 작년 9월부터 시설민원 one-stop 서비스인 단디센터(구내전화 7000번)를 운영하고 있다. 단디센터는 시설사용자의 민원 창구가 일원화돼 신속한 응대와 조치가 가능하다.

이지수 기자
pressjs18@pukyong.ac.kr

단신

흔소리&알아봤습니다

우리대학 학생생활관,

입사생들이 10년간 모은 동전으로 쌀 기부해



▲쌀을 기부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기부자들의 모습

(제공 : 홍보팀 이성재)

지난 5월 22일(수), 우리대학 학생생활관은 세종1관(E11)에 비치된 동전 모금함의 기부액으로 쌀 200kg을 구입해 가온관(B21)에 있는 ‘사랑의 쌀독’에 기부했다.

2009년부터 10년간 학생생활관은 1층 경비실 앞 모금함에 매 학기 청소를 하며 나온 동전과 학생들이 기부한 동전을 모았다.

우리대학 학생생활관 행정실 황종원 주무관은 “현재 많은 동전이 모여 분실의 위험이 있다”며 “평소 틈틈이 입사생들이 모은 동전인 만큼 이웃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모금함을 개방하게 됐다”고 전했다.

모금함에는 △500원짜리 동전 108개 △100원짜리 동전 1748개 △50원짜리 동전 1050개 △10원짜리 동전 5716개와 △5천원

권 3장 △1천원권 51장이 들어있어 총 40만 4460원이 모였다. 이 중에는 외국인 유학생이 기부한 동전들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 황 주무관은 “외화는 워낙 작은 단위의 돈이라 환전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나중에 학생생활관 휴게실을 설치하면 여러 나라의 외화를 전시할 계획”이라 밝혔다.

한편 학생생활관 서재호 관장은 “학생들의 마음이 이웃에 잘 전달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자비로 10만 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또한 세종1관 손민경(재료공학·2014) 동장은 “가치없어 보이는 작은 동전들을 10년 동안 모아 이웃을 도울 수 있어 뿌듯하다”고 전했다.

최자윤 기자
presscj19@pukyong.ac.kr

푸른 노르웨이 숲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대학 ‘노르웨이 숲’은 주로 학우들이 공간시간이나 학교를 마친 뒤 음식을 먹고 담소를 나누는 휴식장소다. 하지만 노르웨이 숲에 배치된 쓰레기통은 학우들이 먹고 남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버려지는 쓰레기양에 비해 쓰레기 처리 시설이 부족하다. 매일 아침 혹은 늦은 저녁에 노르웨이 숲 근처를 지나가면 쓰레기통이 가득 차 주변 오염이 심각한 것을 볼 수 있다.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이 많을뿐더러 분리수거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기에 매일 버려지는 쓰레기를 현재 노르웨이 숲 쓰레기통으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사람들이 먹다 남긴 피자·치킨 박스와 음료가 남은 플라스틱 용기를 쓰레기통 주변에 버려 쓰레기더미가 점점 쌓이게 된다. 이렇게 쌓인 쓰레기들을 까마귀나 고양이들이 파헤쳐 악취까지 풍긴다. 이 상태가 계속 방치되면서 우리대학의 미관 또한 저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필자는 학교차원에서 노르웨이 숲에 지금보다 개선된 쓰레기 처리시설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숲 이용 후 자신이 머문 자리를 깨끗이 치우지 않고 제대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우리대학 학우들의 행동 역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동근(신문방송·2019)

최희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노르웨이 숲은 우리대학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다. 현재 노르웨이 숲의 쓰레기통은 2개 뿐이기에 우리대학 환경미화원들이 오전과 오후 각각 한 번씩 숲을 청소하고 있음에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관해 우리대학 총무과 최희수 주무관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무분별하게 쓰레기통 주위에 쌓인 쓰레기 문제에 대해 최 주무관은 “박스와 같이 부피가 큰 쓰레기들은 쓰레기통에 모두 넣기는 역부족”이라며 “이에 따라 쓰레기통 위에 ‘박스와 같이 부피가 큰 쓰레기들은 쓰레기통 위에 올려달라’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붙여놓았다”고 말했다.

또한 배출되는 쓰레기양에 비해 부족한

처리시설 문제에 대해 최 주무관은 “쓰레기통 설치를 늘리면 학교의 미관이 저해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설치공간의 한계로 쓰레기통 추가설치는 힘든 상황”이라고 답했다. 다만 최 주무관은 “환경미화원들의 청소 빈도수를 늘리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주무관은 “우리대학은 지리상 도심에 위치해 있어 외부인들이 자주 출입하기에 학우들이 배출하는 쓰레기와 함께 외부인들의 쓰레기까지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더 나은 노르웨이 숲 환경이 되기 위해 학생들의 쓰레기 배출 자체와 자발적인 쓰레기 처리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최희수 기자
presschs19@pukyong.ac.kr

제23회 백경대동제 예산 논란 일어나

용역업체 선정 및 초대가수 섭외 부실했다는 평가받아

지난 5월 14일(화)부터 16일(목)까지 진행된 제23회 백경대동제가 책정된 예산에 비해 용역업체 선정과 초대가수 섭외 면에서 부실하다는 논란이 일어났다.

지난 4월 30일(화), 축제 초대가수 라인업이 페이스북 총학생회 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이후 우리대학 익명 SNS 커뮤니티에는 '대동제 초대가수 라인업 중 이번 축제가 역대 최악이다', '이번 축제 예산에 대해 총학생회는 해명해야한다' 등 용역업체 선정과 초대가수 섭외를 비판하는 글이 게시됐다. 이번 백경대동제 초대가수 섭외에 대해 우리대학 이다형(경영·2018) 학우는 "우리대학의 축제 예

산에 비해 초대가수 라인업이 부족할 뿐 아니라 힙합가수에 치중돼있어 학우들이 다양한 음악 장르를 즐기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기관에서 행하는 물자조달 감독 및 계약관리 담당인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시된 공고문에 따르면 올해 대학축제 예산은 △부경대 9,300만 원 △경북대 6,590만 원 △부산대 7,500만 원 △해양대 5,600만 원으로 우리대학 축제 예산은 타 학교에 비해 높게 책정됐다. 또한 연예인 섭외 사이트 'STAR4U'에 따르면 올해 경북대 초대가수 섭외비용은 사이 2,500만 원, 마마무 4,000~5,000만 원이다. 우

리대학의 초대가수 섭외비용은 △다이나믹 듀오 2,000~3,000만 원 △제시 1,000~2,000만 원 △레이샤 500만 원 이하 △40(포티) 가격 미상으로 타 대학의 예산 대비 총 섭외비용에 비해 우리대학 예산 대비 총 섭외 비용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에 우리대학 제20대 利: Action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페이스북 총학 페이지에 해명문을 게시했다. 총학은 해명문에서 "백경대동제에서 총학의 역할은 부스 운영 및 계획 총괄, 축제 컨셉 계획과 학교 측과의 축제 일정 협의"라며 "이번 축제 운영비용인 9,300만 원은 오로지 학교의 예산일 뿐 총학과는 관계없다"고 주장

했다. 상반기 전체 대표자 회의에서 축제에 배분된 총학의 예산지출 사업비는 약 1,100만 원으로, 이와 같은 축제 예산에 대해 총학 최우현(토목공·2013) 회장은 "총학 축제 예산은 △무전기·경광봉 대여 △캐노피·의자·테이블·조명 구매 △조명 렌탈 △푸드트럭 이벤트 등으로 지출됐다"고 밝혔다.

한편 용역업체는 무대설치, 장비운용 등 전문적인 작업을 맡으며 대학 측과 행사 비용 배분을 협의한다. 우리대학 용역업체 선정은 희망업체들의 경쟁입찰 후 계약주체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단체를 선택하는 공개 및 제한경쟁입찰 방식이다. 또한 용역업체 계약은 △우리대학 직원 2명 △외부위원 5명(타 국립대학 직원, 국가 기관 관계자 등) △학생 1명으로 구성된 입찰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협상 후에 이뤄진다.

초대가수 섭외의 경우 학우들의 의견 수렴 후 가수의 스케줄과 비용을 협의해 최종 라인업을 결정한다. 우리대학은 기존 입찰 방식 때문에 매년 초대가수 섭외 시기가 타 학교에 비해 늦는 편이며 2016년 제20회 백경대동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아이돌 가수 섭외가 금지된 상태다. 아이돌 섭외 금지에 대해 이 학우는 "사고로 인해 아이돌 가수 섭외를 전면 금지시키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 회장은 "아이돌 섭외 금지 조치로 인해 학우들의 즐길 거리가 줄었다"며 "아이돌 섭외 금지는 학교 측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에 총학은 이번 백경대동제 초대가수 섭외 시기를 앞당기고자 본래 이용하던 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해 맺는 계약)을 대학 측에 제안했으나 대다수의 소속사에서 행정적 예산으로 불가한 선입금을 요구해 무산됐다.

이번 백경대동제의 용역업체 선정과 초대가수 섭외 논란에 대해 최 회장은 "회의를 느끼기도 했지만 성찰의 계기가 됐고, 아직 총학에 대한 인식 개선은 갈 길이 먼 것 같다"며 "매일 집행부들과 회의하며 총학 인식 개선을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김현수 기자
presskhs18@pukyong.ac.kr

취재 수첩

금지만이 예방은 아니다

2016년 5월 16일(월), 제20회 백경대동제에서 플라스틱 재질의 채광창 위에 올라가 공연을 관람하던 대학생 두 명이 7m 아래의 지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주최 측과 대학 관계자는 추락사고 위험이 있는 채광창 주변을 통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당시 총학 회장과 일부 교직원에게 신분상 조치 및 법적 조치가 이뤄졌으며 우리대학은 현재까지 △남구청 △부산시 △교육부의 특별 지도를 받고 있다.

이에 학교 측은 사고 예방의 일환으로 아이돌 가수 섭외에 대해 금지 조치를 내렸다. 아이돌 섭외 금지 조치에 대해 우리대학 학생복지과 제희근 팀장은 "해당 조치는 당분간 유지될 방침이며 조치를 철회할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해답이었을까. 흔히 대학축제의 꽃은 '주점'과 '초대가수 공연'이라고 한다. 이전 축제에서 우리대학 학우들은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주점에서 안주와 술을 먹고, 쉽게 볼 수 없었던 초대가수의 공연을 보며

축제를 즐길 수 있었다. 그러나 주점은 작년부터 주세법 위반을 이유로 정부에게 강력하게 제재받고 있으며 우리대학은 아이돌 섭외 금지 조치로 섭외 가능한 초대가수마저 한정된 상태다.

필자는 아이돌 섭외 금지 조치만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백경대동제 첫 날 다이나믹 듀오의 공연에서 사람들은 더 넓은 시야에서 공연을 즐기기 위해 사회자가 경고하기 전까지 팬스를 밀거나 의자 혹은 나무 위에 올라갔다. 우리대학 총학생회 최우현(토목공·2013) 회장은 "이번 대동제에서 사회자와 자원봉사단들이 만류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는 학우들이 있었다"며 "학우들이 안전의식을 가지고 공연을 관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렇듯 아이돌 섭외 금지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사고에 대한 위험성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 측이 아무리 사고 예방에 노력을 기울여도 분명 한계는 존재한다. 이는 아이돌 가수의 공연뿐만 아니라 어떤 공연이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



김 현 수

대학기획부 정기자

러니 아이돌 가수 섭외를 금지하는 것보다 학우들의 안전의식 교육으로 위험한 행동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또한 대학 측에서 철저하게 사고 예방에 힘을 기울이는 동안 학우들 역시 안전을 위해 위험한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2016년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도 않도록 대학 측과 학우들 모두 노력해야 앞으로 있을 대학축제 역시 즐겁게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인터뷰 - 빈나영(생물공·2018) 학우, 정세영(생물공·2018) 학우

‘나불 아프리에’ 를 만나다

우리대학에는 매 학기 한 번 정기 전시회를 여는 ‘나불 아프리에’ 라는 미술 동아리가 있다. 이번 정기 전시회는 지난 5월 27일(월)부터 29일(수)까지 3일간 청운관(B22)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에는 평소 동아리 활동으로 완성한 유화 17작품과 아크릴 1작품을 전시했다. 한 학기동안 열심히 준비한 결실을 보여주는 전시회인 만큼 나불 아프리에 부원들의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이에 본지는 나불 아프리에 회장 빈나영(생물공·2018) 학우와 이번 전시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전시회 이름인 ‘나불 아프리에’는 무슨 뜻인가요?

A. 빈 학우 : 저희 동아리 이름인 ‘나불 아프리에’를 따서 이번 전시회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파도가 ‘나불’이라 불린다고 합니다. 또한 아프리에 는 화가들에게 작업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나불 아프리에에는 파도의 작업실이라는 의미입니다.

Q. 이번 전시회를 기획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빈 학우 : 저희 동아리는 미술 동아리라는 특성상 평소 활동한 것을 학우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매 학기 저희 동아리의 활동내역을 보여주는 취지로 정기 전시회를 기획했습니다. 전시회 준비과정에서 작품을 완성했다는 것에 성취감과 뿌듯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전시회를 즐겁게 기획할 수 있었습니다.

Q. 나불 아프리에만의 테마는 무엇이었나요?

A. 빈 학우 : 이번 전시회 테마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평소 동아리 부원들이 그리고 싶었던 그림을 그려 전시하고 있습니다.

Q. 전시회를 위해 동아리 부원들과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A. 빈 학우 : 각 부원마다 다르지만 오랜기간동안 전시회를 준비한 부원은 작년

부터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대부분의 부원은 이번 학기부터 준비했습니다. 다들 공강시간에 틈틈이 그림을 그렸고, 밤샘 작업을 한 조원들도 꽤 있었습니다.

Q. 작품을 만드실 때 주로 어디서 영감을 얻으시나요?

A. 빈 학우 : 부원들은 인터넷을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느낌의 사진을 찾아 그림을 그립니다. 사진은 좋아하는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동물이나 자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Q. 이번 전시회에서 우리대학 학우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작품이 있나요?

A. 빈 학우 : 작품마다 각각의 매력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50기 엄권오 선배의 작품인 ‘미아’를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이 작품은 잔잔한 배경에 순록 한 마리가 서 있는 그림인데 작품과 제목인 ‘미아’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감성적인 작품이라 우리대학 학우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Q. 전시회의 기획자로서 우리대학 학우들이 전시회를 어떤 자세로 감상했으면 하시나요?

A. 빈 학우 : 작품과 그 작품의 제목이 얼마나 어울리는지 생각하면서 작품을 감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우리대학 학우들이 전시회를 보는



▲이번 전시회를 준비한 오른쪽부터 빈나영(생물공·2018) 회장과 정세영(생물공·2018) 홍보부장

것 이외의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은 없나요?

A. 빈 학우 : 이번 전시회는 준비기간이 짧아 따로 학우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전시회에는 작품과 작품 제목이 얼마나 어울리는지 학우들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Q.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이 있나요?

A. 빈 학우 : 제 개인적으로 힘들었다기 보단 동아리 부원들이 그림을 제 시간에 완성하기 위해 힘들어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Q. 전시회를 준비하시면서 힘드셨을 때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있나요?

A. 빈 학우 : 준비 과정에서 많이 힘들었지만 서로서로 열심히 작품을 만드는 부원들을 보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Q. 앞으로 기획해보고 싶으신 전시가

있나요?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빈 학우 : 항상 전시회의 그림은 인터넷으로 사진을 찾아 똑같이 그리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소망이지만 우리대학 사진 동아리와 연합해 사진 동아리에서 찍은 사진을 저희 부원들이 그려보는 전시회를 기획해보고 싶습니다. 사진과 그림을 같이 전시하며 우리대학 학우들이 비교하는 재미를 느끼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아직 미술 작품 감상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대학 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A. 빈 학우 : 저희가 전시한 작품은 대부분 유화 작품입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유화 작품을 다루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자주 보면서 유화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우분들도 이번 전시회를 통해 ‘유화’라는 양식이 마냥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자윤 기자
presscjy19@pukyong.ac.kr

버킷리스트

나 혼자 산다? No, 외국인과 산다!

저의 인생 소원 중 하나는 외국인 친구를 사귀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문화와 언어적으로 다른 나라의 사람과 교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캠퍼스에 외국인이 많아도 막상 그들과 친해질 기회가 없어 매우 아쉬웠습니다. 그러던 차에, 우리대학 국제교류부에서 진행하는 하계 부경국제계절학기(이하 PKNU-ISS)에 대해 알게 됐고 바로 모집신청을 했습니다. PKNU-ISS 모집에 합격한 저는 ‘버디 시스템’을 통해 외국인 친구와 세종1관에서 같이 지내며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버디를 신청한 학생은 기숙사비를 전액 지원받고, 버디와 별개로 계절학기 강의 수업료도 전액 지원받아 저는 금전적인 면에서 부담을 덜기도 했습니다.

저는 PKNU-ISS에 호기롭게 지원했지만 ‘과연 룸메이트와 영어로 소통하며 잘 지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물밀 듯이 찾아왔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룸메이트도 저와 같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러한 사실을 통해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 친구가 가방을 잃어버려 같이 찾아다녔던 것은 아직까지 잊을 수 없는 그 친구와의 첫 만남입니다. 결과적으로 가방을 찾아 버디로서 도움이 됐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저는 PKNU-ISS 선택과목으로 글로벌 자율전공학부의 한희진 교수님이 진행하신 ‘국제관계의 이해’라는 과목을 수강했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난민 문제와 같은 국제사회의 여러 이슈들을 다뤘습니다. 저의 영어 실력이 많이 부족했음에도 불

구하고 한희진 교수님께서 많은 독려와 도움을 주시면서 친구들 앞에서 영어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한 매 수업마다 그날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외국인 친구들과 토론 및 토의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단기간 내에 빠르게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배운 터라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많이 생겼습니다.

혹시나 외국인 친구와 함께하는 영어 수업을 듣고 싶지만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데 할 수 있을까?’라며 고민 중인 학우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다가오는 PKNU-ISS 프로그램에 꼭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누군가 ‘대학생활 동안 제일 행복했고 재밌었던 추억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주저없이 PKNU-



▲외국인 친구와 포즈를 취하고 있는 변성문(왼쪽 왼쪽에서 세 번째) 학우

ISS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좋은 경험이었고, 이 프로그램에 신청한 학우분도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것이라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변성문(정보통신공·2015)

책 을 품 은 기 자

책 한 권 읽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
과 읽을 만한 책을 기다리다 지친 사람
사이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G.K.체스터튼

70. 소수의견

진실을 향한 100원의 손해배상



손아람 / 들녘

'다수'의 부정에 목소리를 내는 '소수'가 있다. 소수의견이란 다수결 사회에서 다수의 의견에 들지 못해 폐기된 의견을 말한다. 우리는 학창시절동안 민주주의를 배우면서 이 소수의견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 소개할 책인 손아람의 소설 '소수의견'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소수의견을 존중하기는커녕 소수를 억압하려고 한다. 지금부터 필자는 사법부의 부패와 언론의 탐욕, 그리고 누구도 응원하지 않는 국가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한다.

책에서 사건의 발단은 서울 도심, 재개발지구에서의 재개발 반대 시위다.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경찰은 무력을 동원하고 이 과정에서 한 소년이 죽는다. 이에 소년의 아버지 '박재호'가 자신의 아들을 죽였다고 추정되는 경찰을 죽임으로써 시위에서는 총 두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다. 이후 박재호는 살인혐의로 감옥에 가고 가난한 국선변호사 '윤변호사(이하 윤변)'가 변론을 맡게 된다. 반면 국가는 경찰이 시위진압 중 민간인을 죽였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박재호의 아들을 죽인 것은 용역강제라고 발표한다. 윤변 역시 박재호 사건을 단지 경찰 살인사건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한 기자가 윤변에게 사건 자료를 보여주며 이 사건은 단순한 경찰 살인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다. 또한 윤변은 자료 열람을 거부하고 은폐하려는 검사와 서둘러 재판을 진행하려는 사법부에 수상함을 느끼고 선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더 깊이 파헤치게 된다.

하지만 검찰의 방해로 수사는 난항을 겪게 되고, 윤변은 박재호의 아들을 죽인 사람이 경찰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 국가가 진실을 은폐하려 한다고 확신한다. 윤변은 이에 분노하며 선배 변호사, 기자와 함께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하기로 결심한다. 소송은 급전이 아닌 국가가 진실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100원'이라는

낮은 배상금액을 걸게된다. 윤변은 국선변호사의 신분으로 국가 대상인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국선변호사를 그만두고 소송에 참여하고, 언론과 대중 역시 100원짜리 재판에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

사건을 조사하던 중 윤변은 국가가 소년을 죽인 용의자로 지목한 용역강제 '김수만'을 만나고, 그로부터 뒷사람들의 지시에 따라 거짓 자백을 했다는 말을 전해 듣는다. 또한 윤변은 당시 시위현장에 있던 경찰을 만나 증언을 부탁하며, 김수만과 경찰은 증인의 신분으로 재판에 서게 된다. 재판에서 검사가 김수만에게 거짓 자백을 강요했던 녹음파일의 공개로 윤변과 박재호 측에게 유리하게 판이 뒤집힌다. 결국 법원은 경찰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인정하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박재호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한다.

이 책의 후기를 보면 현실적인 법정 소설, 현실적인 결말이라는 의견이 많다. 필자 역시 소설의 내용이 단순한 허구가 아닌 실제로 현실과 깊게 닿아 있다는 사실에 쓸쓸함을 느꼈다.

이 책에서 가리키는 소수는 바로 박재호와 윤변이다. 재개발 반대 시위를 하다 박재호의 아들이 죽는 것은 '용산철거민참사'를 연상시킨다. 재개발 지역에 살고 있는 돈 없고 힘 없는 서민인 박재호와

용산철거민들은 자신의 공간을 지키기 위해 반대시위를 해보지만 궁지에 몰린 서민을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실 윤변은 정의를 추구하지만 압도적인 권력을 가진 다수에 해당하는 사법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없다. 그럼에도 윤변은 다수 권력의 거대한 힘에 용감하게 도전장을 내민다.

소설 속 검사와 판사가 이미 가까운 사이였던 것처럼 현실에서도 사법부는 혈연이나 학연, 지연의 유착문제를 떨쳐낼 수 없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사법부는 연고주의와 전관예우에 의한 불신을 받아왔다. 하지만 아직도 사법부에 '적폐'라는 꼬리표가 붙은 것을 보면 변함없이 연고주의에 의한 적폐가 이어져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은 여러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입막음했다. 또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일부 대법관들이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사건에 휘말렸다. 이들이 오랫동안 범죄를 저지르고도 높은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를 덮어준 수많은 주변인들 덕분일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부정부패 척결의 칼날 끝이 사법부를 향한 것부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언급된 지금의 현실까지 그들의 부패한 모습에 대해 사법부는 반성할 필요가 있다.

최희수 기자
presschs19@pukyong.ac.kr



쉬어가는 코너

아래의 두 사진을 자세히 비교해 보시면 다른 곳이 5군데 있습니다. 잘 찾아보신 뒤 3개 이상을 찾아대
연캠퍼스 나비센터 (B12/신 학생회관) 3층, 부경대신문사로 가져오시면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5천 원)
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당첨자는 2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해 부경대신문사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_____
학과 : _____

학번 : _____
H.P : _____

당
첨
자

• 이수정(신문방송·2019)

젠더리스, 다양한 색깔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과거에는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을 선보이는 젠더 마케팅이 흔했지만 최근에는 성별에 따른 규칙을 정해놓지 않는 젠더리스 마케팅이 선호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정해놓은 성 역할을 거부하는 이 흐름은 개인의 자유를 넘어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학적 성(Gender)이 다른 트랜스젠더와 같은 성소수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한다. 이제 당신이 화장을 하든, 머리를 짧게 자르든 옳고 그름의 잣대로 판단할 수 없다. 이제 '남성용'과 '여성용'은 구시대적 발상이기 때문이다.

젠더리스, 트렌드가 되다

■ 뷰티

화장은 원래 여성들의 외모를 치장하기 위한 용도였지만, 이제는 남녀를 불문하고 화장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겼다.

이러한 풍토에 따라 국내 최초 남녀 공용 화장품 브랜드 LAKA가 생겼다. 색조화장품의 이미지컷 모델에 남성과 여성을 동시에 선보임으로써 화장이 생소한 남성들도 색조화장을 할 수 있

다는 것을 보여주고 화장품에 성별 구분이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미국의 신생화장품 회사 Fluide 역시 'Makeup for everyone'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다양한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메이크업 제품을 개발한다. 다양한 젠더를 가진 모델들을 통해 사람들이 여러 젠더의 모습에 익숙해지도록 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젠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도록 해준다.

■ 패션

'젠더뉴트럴'은 패션계에서 새로운 트렌드로 주목받는다. 기존의 패션에는 치마와 바지에서부터 젠더의 장벽이 있기 때문이다.

스파브랜드 ZARA는 남성용, 여성용 옷을 구분하지 않는 '언젠더드(Ungendered) 라인'을 선보였고, H&M은 성별이 드러나지 않는 '젠더리스 컬렉션'을 만들었다. 두 스파 브

랜드는 패션에 대한 사람들의 선택지를 넓혀주며 옷에 대한 성적 편견을 없애준다.

패션모델과 런웨이에서도 변화가 있다. 구찌는 남성과 여성 컬렉션을 각자 다른 무대에 세우는 것을 지양한다. 2016년 F/W 런웨이에서는 트랜스젠더 모델을 내보이며 성의 구분을 허물었다. 이어 루이비통은 기존 여성모델이 입던 옷을 남성모델이 선보인 광고를 공개하기도 했다.

■ 마케팅

많은 기업들이 마케팅을 통해 남성과 여성의 구분을 없애며 유행에 발맞추고 있다. 특히 올바른 성적관념 형성을 위해 어린이를 겨냥한 마케팅이 늘고 있다.

해외 대형 쇼핑몰 Amazon은 장난감 코너를 'Boys', 'Girls'로 나누는 대신 'Kids'로 통일했다. 또한 성별 분류를 연상시킬 수 있는 색깔 대신 다양한 색

의 장난감들을 함께 진열해 아이들이 편견 없이 상품을 고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세계 최초 젠더 프리 패션 편집숍인 The Phluid Project에서는 젠더리스 브랜드의 옷을 판다. 스페인 완구 기업 Toy Planet은 여자아이가 공구를 사용하고 남자아이가 인형을 가지고 노는 광고를 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같이 성적 고정관념으로부터 탈피한 마케팅 방법은 많은 사람들로 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 이모티콘



올해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제3의 성을 표현한 이모티콘을 선보일

예정이다. 기존 체제는 사람을 형상화한 이모티콘이 남성과 여성으로만 나온다. 예를 들어 경찰 이모티콘은 남성이 기본 값으로 나오며, 여성은 선택사항으로 존재한다.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성소수자 이모티콘 내보이고 있지만 성 중립 옵션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구글은 "성별의 구분이 필요하지 않다면 성 중립 옵션을 추가해 한쪽 성별이 기본 값으로 설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성 없는 사회로의 도약을 위한 변화

젠더리스 문화가 트렌드처럼 유행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구분을 없애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다.

런던교통공사 TFL은 2017년 7월부터 지하철 방송에서 고객들을 부를 때 'Ladies and Gentlemen' 대신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Hello everyone'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네덜란드의 철도회사와 암스테르담시 또한 남성과 여성을 지칭하는 말 대신 'Best attendees(참석자 여러분)', 'Dear resident(주민 여러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한편 현재 자주 사용되는 스마트 음성비서들은 대부분 여성젠더다. 유네스코는 보고서를 통해 "전통적인 여성 이름을 부여한 음성비서를 여성 목소리로 만드는 것은 여성들이 낮은 대우에 관대하다는 성적 편견을 강화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젠더리스 음성비서가 생겨났다. 북

유럽 IT 기업 Virtue는 트랜스젠더와 같은 성소수자 5명의 목소리를 녹음해 음성변조를 하는 방식으로 무성(無性) 음성비서를 만들었다.

네덜란드에서는 2018년 초 제3의 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젠더리스 여권이 생겼다. 기존 여권이 남성을 M, 여성을 V로 표현한 반면, 젠더리스 여권에는 성별이 X로 표기되었다.

더불어 일본의 한 중학교에서는 성 소수자 학생을 위해 남녀 교복의 차이를 없앤 젠더리스 교복을 도입하기도 했다. 이는 신체적 성과 정신적 성이 다른 트랜스젠더를 위한 정책으로, 일본의 다양한 교복 매이커에서 긍정적인 관심을 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는 성평등을 넘어 성 없음(Genderless)을 지향하며, 사람들의 소비와 비즈니스에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고스란히 녹아든 것을 알 수 있다.

성 중립 화장실 이슈



최근 국내에서 성 중립 화장실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검토되고 있다. 정치권의 여러 후보들이 공약의 일환으로 성평등을 위한 성 중립 화장실 도입을 언급했지만 이는 사회적으로 거센 찬반 논란을 불러왔다.

성 중립 화장실은 젠더퀴어(젠더 이분법에서 벗어난 성별 정체성) 뿐만 아니라 혼자 화장실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활동보조인과 함께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

확산 추세에 있다. 미국은 지난 2015년 백악관에 성 중립 화장실을 설치하고 캘리포니아 주는 모든 1인용 공공화장실을 성 중립으로 설치할 것을 2016년에 법제화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남녀 공용 화장실이 비교적 흔함에도 시민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지난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남녀 분리 화장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몰카'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성 중립 화장실을 반대하는 의견이 대다수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성 중립 화장실의 범죄 악용성을 논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성별 문제가 아닌 정체성 문제이며 장애인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찬성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

모든 사람이 젠더로 평가받지 않는 사회를 위해

젠더리스가 트렌드가 된 것은 '성별(Sex)을 토대로 성별(Gender)을 규정짓지 말자'는 일종의 인권적 진보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젠더 이분법에 대한 저항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11대 부의장 김난 씨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Q. QUV 단체에 대해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김 부의장 :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

연대 QUV는 대한민국 대학 및 청년 사회에 기반을 둔 성소수자 모임의 연대체입니다. 현재 66개 대학, 75개 모임이 연대하고 있습니다.

Q. 젠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김 부의장 : 젠더는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작동하는 성별체계에 의해 형성되는 것입니다. 또한 젠더는 반드시 고정된 것이 아니며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달라지면 젠더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Q. 젠더 이분법이 가지는 한계 및 피해는 무엇인가요?

A. 김 부의장 : 성별이 남성과 여성, 단 두 가지만 존재한다는 믿음에서 △걸모습 △행동양식 △성역할 등을 요구받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여러 간섭과 억압 등 불이익을 받습니다. 즉, 본인의 능력이 아닌 성별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젠더 이분법에서 비롯되는 성역할과, 여기서 비롯되는 가부장제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평등의 반대편으로 끌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Q. 젠더 이분법을 허물기 위해 필요한 방안이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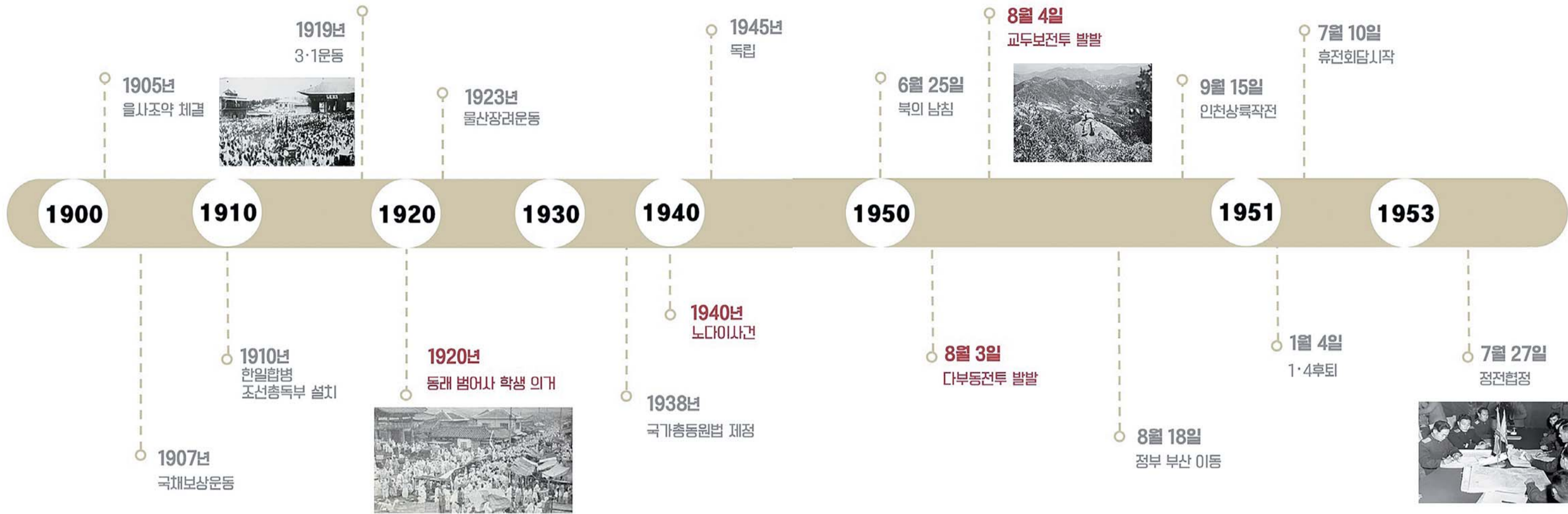
A. 김 부의장 :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되지 않는 사람들의 가시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랜스젠더, 젠더 퀴어와 같이 이분법을 넘어서 다양한 젠더가 존재하지만, 현재 사회에서는 이들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송명준 기자
presssmj18@pukyong.ac.kr
최희수 기자
presschs19@pukyong.ac.kr

민족의 일에 아로새겨진 희생을 돌이키다

이윤주 기자
presslyj18@pukyong.ac.kr
김현수 기자
presskhs18@pukyong.ac.kr
최자윤 기자
presscjy19@pukyong.ac.kr

국가는 많은 전란을 거치며 존재하고, 모든 국가는 그 전란에서 희생된 자를 추모한다. 우리나라 역시 국토방위에 목숨 바친 사람들의 충성을 기념하기 위해 1956년 4월 대통령령 제1145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건」에서 매년 6월 6일을 현충일로 지정했다. △국립현충원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은 현충일을 기념하기 위해 추념행사 및 글짓기·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콘테스트 등 현충일의 의미와 애국선열에 대한 추모를 되새기는 다양한 행사를 매년 개최한다. 또한 현충일 오전 10시 정각에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의 시간을 위해 전국적으로 1분간 사이렌이 울린다. 이에 본지는 현충일을 맞이해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의 역사를 짚어보고 부산에서 벌어진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과 6.25전쟁의 전투를 알아보고자 한다.



일제강점기 속 독립운동가



▲박차정 독립운동가

박차정은 1910년 5월 7일 부산 동래 복천동에서 출생했다. 박차정은 부친을 비롯한 의거 진척들이 일제 항일 운동에 뛰어들던 가운데 그 영향으로 일신여학교를 다니던 시절부터 학생운동에 참가했다. 1929년, 박차정은 근우회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임돼 여성 민족운동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또 1930년에는 부산방직 파업 사업을 주도하다가 일경에게 붙잡혀 소위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

송치된 후 병보석으로 석방되기도 했다. 그녀는 중국 북경으로 망명한 후인 1931년, 의열단장 김원봉을 만나 결혼하고 의열단 단원으로 가입해 활동했으며, 의열단이 설립한 조선혁명군사간부학교에 제1기 여자부 교관으로 선정돼 사관생도 양성을 담당했다. 이후 1938년, 박차정은 기관지 '조선민족전선'에 '경고, 일본의 혁명대중', '조선부녀와 부녀운동'이라는 글을 투고해 총체적인 무장투쟁을 촉구했다. 또한 박차정은 그 해 조선의용대에서 부녀복무단을 조직하고 단장으로 선임돼 항일무장에 참여하다가 일본군을 상대로 싸우던 중 부상을 당하게 된다. 결국 박차정은 이때의 부상으로 1944년 5월 27일 중경에서 서거했다.



▲김범린 독립운동가

김범린은 1899년 8월 23일 부산 동래에서 출생했으며, 범어사 불교전문강원에서 불교경전을 수학했다. 그는 3·1운동 때 서울에서 한용운에게 독립선언서를 받아 불교 승려로서 동래 범어사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했다. 이후 불교학교인 중앙학림 내 설치된 한국민단본부의 대표 자격으로 상해로 파견됐다. 한국민단본부는 항일비밀결사로서 군자금 수합활동을 하고 상해 임시정부 부원과 국의독립운동을 연결하는

단체였다. 파견 당시 김범린은 임시정부에서 국내 파견원의 자격으로 1919년 국내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이후 그는 국의 독립운동의 소식을 국내에 전달하기 위해 '혁신공보'를 발간 후 지방까지 배포하며 선전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그는 승려로서 폭넓은 세계 속 조국 독립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프랑스 유학을 갔고, 프랑스 파리대학 문학부에 재학하면서 피암박민족대회에서 한국 대표로 활약했다. 귀국 후에는 조선 어학회가 주관하는 조선어사전편찬회의 준비위원으로 참가했으며 비밀결사를 통해 만당의 결사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일경에 발각됨으로써 김범린은 2년간 고문을 당하며 옥고를 치르게 된다.

일제강점기 속 학생운동

부산 항일학생의거(노다이 사건)

1930~40년대에는 일제의 통치가 더욱 극심해졌고, 조선 학생들의 군사 교육을 통해 진시 체제를 더욱 강화했다. 하지만 심판장이었던 노다이(乃台)는 '심판의 관정은 신성하고 절대 불가하므로 관정을 따르라'라고 말하며 항의를 묵살했다. 이에 학생들은 분노하며 폐회식의 일정이 하강식 때 애국가와 아리랑을 부르며 행진했고, 노다이의 집으로 몰려가 돌 세례를 하기도 했다. 이러한 항일 학생 의거에 200여 명의 학생들이 구속돼 고문당했다. 노다이 사건은 일제의 언론 탄압으로 그 사건의 실황이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제 말에도 변함 없는 독립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동래 범어사 학생 의거

1919년 3·1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지면서 1919년 3월 18일과 19일에는 범어사 명정학교 학생들과 불교계 인사들이 동래 장남을 맞아 만세운동을 진행했다. 범어사 만세운동은 1919년 2월에 만해스님인 한용운이 당시 주지 성월스님을 비롯해 담해·이산스님을 만나면서 시작됐다. 이때 서울 불교 중앙학림에 재학 중이었던 김상헌은 김범린과 한용운의 지도하에 동역회 학생들이 모인 '유심회'에 가입했으며, 이들은 서울 탐골공원에서 각 학교 학생대표들과 민중들을 지도하는데 동참했다. 김범린과 김상헌은 한용운의 지시에 따라 독립선언서 5000장을 등사해

가장 불리한 코스에 배치하는 등 고의적인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결국 부산중학교가 1위를 차지했고, 동래중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은 단체로 항의했다. 하지만 심판장이었던 노다이(乃台)는 '심판의 관정은 신성하고 절대 불가하므로 관정을 따르라'라고 말하며 항의를 묵살했다. 이에 학생들은 분노하며 폐회식의 일정이 하강식 때 애국가와 아리랑을 부르며 행진했고, 노다이의 집으로 몰려가 돌 세례를 하기도 했다. 이러한 항일 학생 의거에 200여 명의 학생들이 구속돼 고문당했다. 노다이 사건은 일제의 언론 탄압으로 그 사건의 실황이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제 말에도 변함 없는 독립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6.25 전쟁 속 시장



▲6·25 전쟁 당시 부산국제시장

부산국제시장은 자갈치시장, 부평강통시장과 함께 부산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으로 손꼽힌다. 국제시장은 해방 후 일본인들이 일본으로 귀국하며 조선인들에게 헐값에 팔아넘긴 재물 속 물건들을 다시 조선인들끼리 거래하며 생겨났다. 이로 인해 초기 부산국제시장은 '얼다'

라는 뜻의 일본어인 '뚫뚫'에서 비롯돼 '도떼기시장'이라 불렸다. '국제시장'이라는 이름은 △미국 △일본 △한국 등 다양한 국가들의 물건들을 살 수 있다는 뜻으로 6·25전쟁 시기인 1950년에 이름이 붙여졌다. 6·25전쟁 발발 후 서울을 대신해 부산이 임시 수도가 되면서 피란민들이 물밀 듯이 부산으로 밀려왔다. 그로 인해 많은 피란민들이 먹고살기 위해 국제시장에 노점을 차렸고, 부산 토박이 상인들과 경쟁하며 생존을 도모했다. 이들은 재봉틀로 옷을 수선하거나 미군 부대 주변에서 담배와 초콜릿 등을 싸게 구입해 팔기도 했다. 이후 부산국제시장은 큰 번영을 누리며 전국의 다양한 전통시장들과 함께 소멸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된다.



▲6·25 전쟁 당시 부산부평강통시장

부평강통시장은 1876년 강화도조약으로 일본인들이 대거 이주하며 형성된 사설 시장이었다. 당시에는 '일한시장'이라 불렸으며 해방 이후 이름을 '부평시장'으로 바꿨다. 부평시장은 6·25전쟁 당시 임시수도였던 부산의 인구가 두 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피란민들이 필요한 재화와

생필품을 얻기 위해 물물교환하며 활성화됐다. 이 과정에서 미군부대의 통조림이 거래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부평시장은 '부평강통시장'이라 불렸다. 부평강통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죽집골목'이다. 6·25전쟁 당시 먹을 것이 부족했던 피란민들은 미군 부대의 잔반을 하나로 모아 죽을 끓여 팔기 시작했다. 이 죽은 생김새가 돼지 먹이와 닮아 '꿀풀이죽' 또는 잔반의 출처인 미군 부대를 뜻하는 '유엔탕'이라 불렸다. 또한 값이 매우 저렴했기 때문에 피란민을 비롯한 상인들의 허기를 채울 수 있는 훌륭한 한 끼 식사였다. 이러한 죽집골목은 오늘날까지 이어졌으며 현재까지도 죽을 파는 노점 상인들을 볼 수 있다.

6.25 전쟁 속 전투

다부동 전투

북한은 6·25전쟁 발발 후 무기와 훈련이 부실한 국군을 연이어 물리치면서 2개월 만에 김천과 포항까지 함락시켰다. 그러나 낙동강 전선에서 국군과 미군의 강렬한 저항으로 치열한 전투가 몇 차례씩 벌어졌다. 다부동 전투는 그 당시 낙동강 전선의 치열했던 전투 중 하나다. 북한은 1950년 8월 임시수도인 부산과 대구로 통하는 교두부를 마련하기 위해 대구 축선을 집중 공격해 전차와 보병을 분리했고, 쌍방간의 전차포에 발사된 철갑탄이 5시간 동안 교차되면서 불꽃을 튀겼다. 이후 인천상륙작전이 시행되면서 많은 미군이 도착함에 따라 북한군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었다.

교두보 전투

부산 교두보 전투는 유엔 사령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에 벌어진 전역적 패배를 겪음으로써 설립한 방어선은 최후의 보루가 됐다. 미군은 북력 약세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무기가 구식이었기 때문에 오산 전투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 대전까지 함락에 성공한 북한군은 낙동강 방어선을 모든 방향으로 포위했으나, 남한군은 북한군의 거센 공격으로 격퇴됐다. 하지만 계속된 전쟁으로 인한 북한군의 손실이 급증하면서 며칠간 서로 재장비 시간을 가지고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 대한 대비를 시작했다. 이때 미군은 반격을 준비하며 후퇴하

포탄이 대구 역에 낙하되면서 대구의 위기는 점차 심화됐다. 이날 정부의 갑작스러운 부산 피난령으로 시민들은 혼란에 빠졌지만 조병옥 내무부 장관이 나서서 피난령을 취소하고 민심을 수습했다. 우리나라의 계속된 거센 저항으로 같은 해 8월 20일 밤 북한 인민군 측은 더 이상 다부동 전선을 돌파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공격방향을 틀면서 전황이 호전되기 시작했다. 미군은 북한군의 화포 중 가용 포를 집중 공격해 전차와 보병을 분리했고, 쌍방간의 전차포에 발사된 철갑탄이 5시간 동안 교차되면서 불꽃을 튀겼다. 이후 인천상륙작전이 시행되면서 많은 미군이 도착함에 따라 북한군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었다.

는 동안 조선인민군의 발을 붙잡아놓는 목적으로 부산 주위에 방어선을 설립했다. 그러나 유엔군이 전쟁 첫 달 동안 지속적인 패배를 겪음으로써 설립한 방어선은 최후의 보루가 됐다. 미군은 북력 약세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무기가 구식이었기 때문에 오산 전투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 대전까지 함락에 성공한 북한군은 낙동강 방어선을 모든 방향으로 포위했으나, 남한군은 북한군의 거센 공격으로 격퇴됐다. 하지만 계속된 전쟁으로 인한 북한군의 손실이 급증하면서 며칠간 서로 재장비 시간을 가지고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 대한 대비를 시작했다. 이때 미군은 반격을 준비하며 후퇴하

황령산터널 배수지 문제, 사전 사업 심사에서 보류돼

부산광역시, 아무런 대책 없이 사업 추진 미뤄...

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는 지난해부터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배수지가 부재한 남구와 수영구가 24시간 내내 언제든 급수할 수 있도록 황령산에 터널식 배수지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부산시는 관리채무비율을 유지해야 한다며 황령산터널 배수지 사업을 사전심사에서 보류했다.

‘황령산터널 배수지’ 사업

‘황령산터널 배수지’ 사업은 황령산 지하에 남구 대연동에서 부산진구 전포동을 걸치는 터널을 건설한 후 터널에 물을 채워 배수지로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터널식 배수지는 산을 뚫어 터널을 만든 후 터널의 양쪽 끝을 막아 물을 채우는 방법으로 이미 지난 2007년 수정산에 설치된 바 있다. 황령산터널 배수지는 총 길이 1,285m에 약 10m의 폭과 높이로 지어질 예정이었다. 이는 최대 75,000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으며 이 용량은 하루 평균 45만 명이 사용가능하다고 추산되고 있다. 해당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약 1,27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황령산터널 배수지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경우, 남구와 수영구의 송수관로에 보수와 수리 등의 문제가 생기더라도 최소 12시간 이상 안정적인 급수가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따로 물탱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수질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이 사업은 일반적인 배수지 사업에 비해 비교적 작은 부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대규모 산림 훼손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친환경적이다.

현황과 문제의 촉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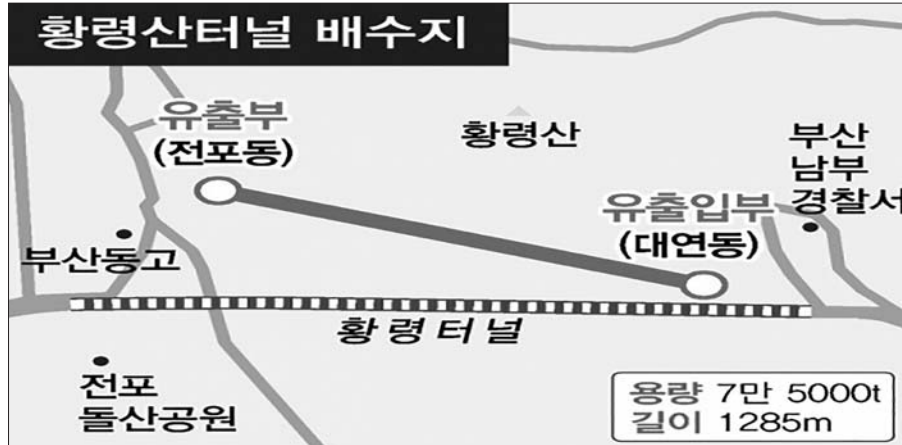
부산시는 본격적으로 황령산터널 배수지 사업을 조성하기에 앞서 지난해 2월 13일(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

터에 타당성 조사를 맡겼다. 그 결과 지난해 9월 10일(월), 건설 비용 대비 편익이 크고 경제성이 높아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받았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20일(화),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이번 배수지 사업은 최초로 임대형 민간투자 방식(BTL)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대형 민간투자 방식은 민간투자자가 공공시설을 지어 완공 이후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해 임대료를 받는 건설사업 방법이다.

이후 민간 사업자의 적격성을 검토하고 부산시의회의 동의와 정부 승인을 거쳐 올해 말부터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황령산터널 배수지 사업은 상수도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이것이 복지 증대로 이어져 타 지자체에 모범적인 선례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 때문에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으며 부산시도 이 사업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왔다. 해당 사업은 계획대로라면 올해 말 착공에 들어가 2023년에 준공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5월 13일(월), 부산시는 해당 사업을 진행할 경우 관리채무비율이 높아지므로 재정운영계획에 근거해 황령산터널 배수지 문제를 신규 사업 사전심사에서 보류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사업 보류의 문제점

현재 부산시 남구와 수영구는 정수장에서 직접 물을 공급받는 방식으로 급수의 대부분을 정수장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렇기에 정수장에 문제가 생길 경우 차선책으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간접 급수 시설이 반드시 필요한데, 간접 급수에 사용되는 배수지가 남구와 수영구에는 부재한 상태다. 이로 인해 남구의 간접 급수율은 17%정도 밖에 되지 않고, 간접 급수율이 더 낮은 수영구는 12%에 불과하



▲황령산터널 배수지 조성 사업 전체 도면(출처 : 부산일보)

다. 해당 수치는 부산시의 평균 간접 급수율인 4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상태로 계속해서 배수지 사업을 보류할 경우 약 47만 명이 달하는 남구와 수영구 주민들은 보수나 파열로 인해 송수관로에 문제가 생길 때 단수 피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부산시에서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언제든 물이 단수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생활할 수밖에 없다. 또한 올해 9월까지 해당 사업의 민간투자자 선정이 공고되지 않고 이에 대해 부산시가 사업에 대한 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한다. 그렇게 되면 사업의 착공 시기가 미뤄져 완공시기를 예상하기 어려워진다.

상반되는 두 입장의 대립

부산시는 “재정운영계획에 근거해 해당 사업이 완공되는 2023년에 부산시의 관리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할 수 있기에 비율 유지를 위해 황령산터널 배수지 사업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시가 이처럼

재정운영계획에 민감한 것은 관리채무비율이 25%를 넘으면 행정안전부의 경고를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산시의 예산과 채무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하면서 임대형 민간투자 방식은 2023년을 기준으로 설정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남구의회의와 수영구의회의 의원들은 “단수될 경우 남구와 수영구 주민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해당 지역의 수돗물 공급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부산시의 결정에 대해 남구 주민 주승연(22)씨는 “황령산 배수지 문제는 주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어 심층적인 사업연구 후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며 “채무문제로 인해 사업을 유보한다는 결정은 주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산시의 이득만 챙기고자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남구 주민 김다영(20)씨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빠른 시일 내에 시와 사업시행자 간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서린 기자
presspsr18@pukyong.ac.kr

취재수첩

아는 만큼 보이고 경험한 만큼 공감한다

물은 우리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물이 어느 시대에도 공통적으로 필요한 요소라는 사실은 변함없다. 필자는 이 사실을 처음 대학에 입학해 남구에 자취하면서 절실히 깨달았다.

이사할 때 이사 갈 집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여러 가지 항목 중 하나는 바로 ‘집 수도의 단수 여부’다. 설사 잘 확인해보고 이사하더라도 원치 않게 단수되기도 하는데 필자의 경우에도 그랬다. 자취방이 단수되는 경우가 많았고 자취방 앞 큰 도로의 송수관로에서는 심심하면 공사를 했다. 그 때는 그저 단수된다는 사실에 짜증만 났다. 하지만 이번 취재를 통해 남구와 수영구의 간접 급수율이 매우 낮아 항상 단수가 될 위험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과 송수관로의 93% 이상이 노후화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구의회의와 수영구의회의 의원들은 단수 피해를 직접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사업

추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부산광역시는 예산과 채무를 지난해를 기준으로 잡고 임대형 민간투자 방식의 잔액을 2023년을 기준으로 잡아 관리채무비율을 측정하는 논리적 오류를 범했다. 이러한 논리적 오류를 근거로 들며 황령산터널 배수지 사업을 신규 사업 사전심사에서 보류했기 때문에 부산광역시의 결정에 대해 의구심이 생기기 않을 수 없다.

관리채무비율이 25%를 넘는 것은 아마 부산광역시가 그 시기에 함께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개발사업 때문일 확률이 높다. 물론 도시개발사업 또한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단수로 인해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권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회적 기반시설 확충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 부산광역시는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기반 시설 확충보다 그저 성장을 위한 사업에만 치중하는 모

습을 보이고 있다. 도시가 높은 개발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그 곳에 사는 주민들은 사회적 기반시설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며 살아간다. 이렇게 된다면 높은 개발 수준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부산광역시는 현재 상황에서 무엇이 우선시돼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평소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을 생활 속에서 항상 느끼며 산다. 필자는 위와 같은 경험을 통해 과거에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고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을 절실히 공감하게 됐다. 어쩌면 남구와 수영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사는 의원들은 이러한 문제가 외당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정을 내렸을 수 있다. 물론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는 한 사태의 심각성을 모를 수 있지만 체감하지 못한다고 해서 단수 피해가 생길 우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대처방



박서린
사회부 정기자

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부산광역시는 현실적으로 당장 사업이 실행 불가능하다면 무작정 보류하기 보다는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사회기획

도 넘은 호객행위, 방법은 없나?

지난 5월 21일(화), 우리대학 익명 SNS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 '정문 근처에 위치한 LG 유플러스 대리점을 고객센터에 신고했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는 글을 통해 "해당 대리점이 길을 막고 전단지 뿌리거나 강제적으로 가게로 끌어들이는 등 도를 넘은 호객행위에 크게 실망했다"고 밝혔다. 하루 뒤인 5월 22일(수), 글쓴이는 '해당 대리점 사무장으로부터 사과전화를 받았다'는 글을 남겼다. 사과 내용은 '과도한 신체접촉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며, 전 직원을 재교육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글이 올라온 다음 날인 5월 23일(목) 18시 22분 경 논란이 된 해당 대리점을 본지에서 관찰한 바에 따르면 직원들이 거리에 나와 "액정필름을 바꿔 주겠다"고 말하며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호객행위에 따른 강매 없이 정직하게 일하고 있는 우리대학 근처의 통신사 대리점인 A지점과의 취재를 통해 호객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충격적인 호객행위 실태

'호객행위'란 물건 등을 판매하기 위해 손님을 부르거나 물건을 사도록 강매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지난 2017년 부산 남포동에 위치한 한 KT 대리점에서 직원들이 길을 지나가던 여성들을 붙잡아 강제로 매장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영상이 SNS에 퍼지며 논란을 낳았다. 해당 영상에는 남성 직원 3~4명이 여성 1명을 상대로 손목을 붙잡고 억지로 등을 떠미는 바람에 여성이 저항조차 하지 못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후 한 인터넷 유저가 해당 지점을 찾아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했고 해당 매장은 본사의 조치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해당 직원들은 퇴사 처리됐다.

이처럼 부산시 △경성대·부경대 부근 △서면 △남포동 일대는 상권이 크고 유동인구가 많기에 이전부터 통신사 대리점의 호객행위가 꾸준히 문제되고 있다.

그들의 행태로 인해 '푼팔이'라는 비하 용어까지 생겨났다. 실제로 T모 회사가 운영하는 KT 대리점은 경성대·부경대, 서면과 남포동에 큰 규모로 자리해있고 직원들이 각 매장으로 서로 옮겨가는 로테이션 제도를 취하고 있다. 이는 해당 지역들의 호객행위 수법이 동일하게 악명 높은 이유기도 하다.

호객행위가 더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회적 약자가 주요 타겟이 되기 때문이다. 속된 표현으로 '만만해 보이는 사람'이 주로 당하며 대부분이 20대 초반의 여성, 노인들이다. 특히 상권이 큰 우리대학 근처에서는 여학생들이 피해를 겪는 일이 흔하다. A지점의 점장 B씨는 작년 12월 우리대학 여학생이 근처의 다른 대리점에서 호객행위로 사기를 당한 뒤 찾아왔다는 사실을 전했다. B씨는 개통취소 절차를 해준 뒤 여학생에게 부당한 계약을 맺은 이유에 대해 물었다고 한다. 해당 학생은 남성 4명이 자신을 둘러싼 채 물품 강매를 하니 두려운 마음이 들어 어쩔 수 없이 체결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17년 한 LG 유플러스 대리점이 지적장애인을 속여 1,800만 원가량을 뜯어낸 사례가 언론에 밝혀진 바 있다. 해당 사례의 피해자는 한 매체를 통해 "3년간 휴대전화 비용을 감당하느라 가스비와 수도비, 생명보험 요금을 지불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어떤 수법을 주로 이용하는가

앞선 사례들처럼 호객행위는 단순한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을 넘어 사기범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다. B점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통신사 대리점의 불법 호객행위는 △보호필름을 바꿔주겠다며 가게로 불러들임 △보호필름을 붙여준 뒤 휴대폰 조회/바로 휴대폰 조회부터 함 △현재 사용 중인 요금제와 비슷한 요금을 맞춘 뒤 휴대폰을 새 것으로 바꿀 것을 강매 순으로 이뤄지는데, 이 과정에서 억지가 많을 뿐더러 구두로 말하는 내용과 계약상의 내용이 다른 경

우가 존재한다. (본지는 해당 절차를 통해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판매하는 대리점 또한 많다는 것을 인지하지만, 이 글에서는 호객행위를 통해 불법 강매와 사기범죄를 저지르는 통신사 대리점을 대상으로 서술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린다.)

먼저, 현재 사용 중인 휴대폰의 기기값 할부금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말하며 비슷한 요금으로 새로운 기기를 살 것을 권유하는 경우가 흔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휴대폰을 바꾸며 기록하는 서류상에 기존 할부금 등의 요금을 세세하게 다 기입한다고 한다. 이 말인 즉, 대리점이 실제로 갚아 줄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추후에 고객이 할부금을 갚아주지 않는다고 따져도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에 물증이 없어져버린다. 실제로 이러한 방식을 통해 작년 5월, 7월, 10월에 걸쳐 강매를 당한 40대 남성은 현재 700만 원 대의 휴대폰 요금 빚에 시달려 실명 증세까지 나타나기도 했다. A지점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이로 인한 피해자들이 많으며 B점장은 "그 중에서도 노인들을 타겟으로 하는 경우가 가장 악질적"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휴대폰을 바꾸면서 기존에 사용했던 기기를 대리점에 '반납'할 것을 강요한다. 해당 대리점에서 중고로 팔아 수익을 다시 돌려주겠다는 의도다. 애초에 강제성이 있어선 안 될뿐더러 반납 후에 중고로 팔렸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온전히 고객에게 돌아간다고 말할 수 없다. B점장은 이를 "가격이 싼 휴대폰은 단순히 자신들이 챙기기 위함이고, 고가 휴대폰들은 일정 금액만 고객에게 주고 나머지는 수익으로 챙겨가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객은 기존 기기값 할부금을 갚으면서 판매 수익도 온전히 가져가지 못하게 된다.

또한 휴대폰을 바꿨을 때의 요금을 제대로 낮춰 설명하곤 하는데, 이는 가족 결합 등의 결합 혹은 카드할인 등의 할인 시스템을 모두 진행했을 때를 가정하고 산정되는 요금이다. 이러한 사실은 고객에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따라서 이후에 손님이 그 가정에 따르지 않아 구두로 전해들은 요금보다 높은 금액이 나왔을 때, 대리점은 "우리 말에 따르지 않았다"고 발뺌할 수 있게 된다.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길거리에서 이뤄지는 호객행위는 전부 불법이며 경범죄로 판단된다. 특히 여성들을 대상으로는 손과 팔을 붙잡는 것은 기본이고 심하면 성추행 수준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강제추행 등 형사사건으로 입건 가능하다.

그럼에도 호객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시민들의 신고율이 낮은 부분도 있지만 회사의 자정 노력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호객행위를 통해 고객들을 많이 유치하고 개통 건수를 늘리는 대리점에 대해서는 회사가 묵인해주는 풍토가 짙다. A지점의 직원은 악질적인 호객행위로 유명한 대리점으로부터 "아직까지 그렇게 정직하고 명정하게 일하면 못 살아 남는다"는 식의 발언을 들었다고 한다.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의 예방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A지점에 따르면 호객꾼에게 속지 않는 방법으로 제일 먼저 '서류 확인'을 꼽았다. 구두로 전달 받은 사항과 서류에 적혀있는 부분이 다르면 즉시 문제 제기하거나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기기반납은 하지 말라고 전하며 이를 "돈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 행위"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중고로 팔고 싶다면 해당 휴대폰의 시세를 비교해 받을 수 있는 수익을 철저히 계산하라고 조언했다.

B점장은 호객행위를 하는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입하지 말 것을 조언했다. 실제로 사기피해를 당한 뒤 민사소송까지 진행했을 때, 서류상의 문제가 없기도 할 뿐더러 고객이 영업방해와 기물과 손 등으로 도리어 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송명준 기자
presssmj18@pukyong.ac.kr



도개비

▲귀신 잡기 대소동

대나무 숲,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이 밤에 술 취한 귀신들을 잡으러 가니, 귀신들이 장승을 못 알아보고 감히 위협했다. 천하대장군이 귀신 한 명을 제압하자 지하여장군도 귀신을 포박하려했지만 혼자 힘으로 역부족인 지라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저승의 염리대왕은 지하여장군이 잘못된 것이 없다고 했지만 사람들은 지하여장군이 본 장승시험이 천하대장군과 달라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비난했다.

이를 본 도개비子曰, "시험의 기준이 다르니 결국 시험에 들게 되는구나."

▲사절단의 기밀 누출

때는 기해년, 서방 세계와 조약을 체결하는 사절단과 조약의 기밀문서를 빼앗으려는 양반들이 있었다. 어느 날, 붉은색 옷을 입은 양반이 사절단 앞에 나타나 기밀문서는 안 볼 테니 어떤 내용인지 귀뜸만 해 달라고 부탁했다. 결국 사절단의 일원이 못 이기는 척 양반에게 기밀문서를 넘겼고, 이 사실을 숨기려 했지만 임금부에 들켜 끌려갔다. 하지만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의도치 않게 넘긴 것'이라고 변명하며 큰소리쳤다.

이 모습을 본 도개비子曰, "사절단은 비밀유출을 하는 단체인 사절단이라는 의미였군!"

부경만평

<임하은>





한옥, 그 속에 담긴 멋

한옥은 과거부터 우리 조상들이 살던 전통 가옥으로 △온돌 △처마 △기단 △마루 등 다른 나라의 전통 가옥에서는 보기 드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현대에 한옥이 잘 보존된 지역인 △북촌 한옥마을 △안동 하회마을 △고촌 한옥마을 등은 한옥단지를 관광 상품으로 개발해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본지는 한옥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한옥에 대해 평소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학우들에게 △한옥의 유래 △한옥의 특징 △현대의 한옥 활용 방법 △지역별 한옥의 특징을 소개하고자 한다.

한옥이란?

한옥은 우리나라 전통 건축양식으로 지은 집을 의미하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통해 정의되고 있다. 이 법에 정의된 한옥은 주요 구조(△기둥 △보 △한식 지붕틀)가 나무로 된 구조를 뜻한다. 한옥이란 단어는 양옥에 대비해 쓰는 단어로, 기와집을 비롯해 △

초가집 △너와집 △굴피집 등도 모두 한옥에 속한다.

상류계층이 머물렀던 한옥은 신분에 따라 공간을 나누고 이를 담장으로 구별했다. △상류계층인 양반은 안채와 사랑채 △중류계층인 청지기는 중문간 행랑채 △하류계층인 머슴은 대문에서 가장 가까운 행랑채에서

생활했다. 또한 신분뿐만 아니라 성별과 나이에 따라서 공간이 구별됐다.

한옥의 가장 큰 특성은 △나무 △돌 △흙 등 자연적인 재료를 이용해 집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친자연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선조들은 한옥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차가운

대륙성 기후와 더운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모두 받는 위치에 있는데, 한옥은 온돌을 이용한 난방과 마루를 통한 냉방 기능을 통해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갖추고 있다. 이렇게 지어진 한옥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주거 형식이라 칭할 수 있다.

현대의 한옥 활용 방법

♣ 한옥의 특징



◆기단

한옥의 기단은 널빤같이 큰 돌로 이뤄져 있다. 기단은 빗물과 지하수로부터 건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기단을 높게 쌓을수록 장중함과 위엄을 준다. 또한 건물의 무게를 기단이 받아 지반에 골고루 전달하면서 한옥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처마

한옥에서의 햇빛은 처마로 인해 여름에는 적게 들어오고 겨울에는 방 안까지 깊이 들어온다. 지구는 23.5° 기울어져 있어 북반구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겨울보다 여름에 해가 더 높게 뜨는데, 처마를 통해 여름의 햇빛은 돌출된 처마에 빙기고 겨울의 햇빛은 부딪히지 않아 방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한지

한옥의 문은 친자연적 종이인 한지로 만들어진다. 공기가 한지 사이를 통과하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지 않아도 환기할 수 있다. 또한 한지는 실내 습도가 높아지면 습기를 흡수했다가, 습도가 낮아지면 증발시켜 실내 습도를 적당하게 유지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한지는 지붕 서까래와 벽지에도 쓰인다.



♣ 한옥카페 '다운나루'

현대에는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현대적 양식의 건축물이 많아 한옥은 희소성을 가진다. 이러한 한옥의 희소성은 소비자들에게 신선함을 제공했고, 이를 마케팅으로 활용하기 위해 한옥의 건축양식을 본 따 건물을 만들기 시작했다. 한옥은 △게스트 하우스 △박물관 △공방 등 다양한 용도로 만들어졌으며, 그 중 하나가 한옥카페다. 한옥카페는 한옥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멋과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라는 카페의 특징을 더한 것이다. 그리하여 옛날 집이라는 한옥의 고정관점을 탈피하고, 한옥도 공공성을 띤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 건축계에 새로운 지평을 제시했다. 최근에는 전국에 다양한 한옥카페가 운영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한옥카페가 구현하고 있는 한옥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부산 강서구에 있는 한 한옥카페를 방문했다.

본지가 방문한 카페 '다운나루'의 건물은 한옥양식을 차용해 만들어졌다. 다운나루는 좋은 일이 한 번에 들어온다는 뜻의 순 우리말인 '다운'과 조만강과 서낙동강 주변에 자리 잡은 카페의 위치를 고려해 강가의 쉽터라는 의미인 '나루'를 더해 만들어진 이름이다.



▲카페메뉴인 나루에이드, 바삭 찰떡구이

♣ 각 지방의 한옥

북부지방 한옥은 대체적으로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 'ㄷ'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 또한 지붕이 낮고 방이 두 줄로 배열돼 있는 겹집구조인데, 이 구조는 외부의 냉기가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해 내부의 온도를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마루나 복도 없이 방과 방을 연결하고, 방과 부엌 사이에는 정주간을 둔 후 온돌을 설치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중부지방 한옥은 대부분 'ㄱ' 혹은 'ㄴ'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 서울의 한옥은 부엌을 동서쪽에 만들고 평양

에서는 부엌과 안방의 방향을 남쪽으로 설계해 햇빛이 잘 들어오게 만들었다. 또한 안방과 건넌방 사이에 마루가 조그맣게 자리하고 있으며 창문의 수가 적다는 특징이 있다.

남부지방 한옥은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기 위해 '一'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부엌 △방 △마루가 일직선으로 이어져있는 홑집 구조로 방과 방 사이에는 대청마루가 있고 방과 창문의 수가 많다. 이 구조는 바람의 흐름이 막히지 않아 여름철 바람이 잘 통하게 하는 데 효과적이다.



◆마루

현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마루는 출입문이 없어 신발만 벗으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다. 마루의 안쪽 벽에 있는 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와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다. 또한 마루와 땅바닥 사이에는 빈 공간이 있어 습기가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썩고 호박을 보관했다.



◆담장

담장은 경계를 나타내기 위해 세워졌다. 기본적으로는 집 안팎의 경계를 구분 지어 외부인과 들짐승의 접근을 막는 기능을 했으며, 남녀가 유별했던 과거에는 사랑채와 안채 사이에 내외담을 설치해 남녀가 마주치지 못하게 했다. 그뿐만 아니라 양반가들은 담장을 치장해 권세를 과시하기도 했다.



◆온돌

한옥은 방바닥 아래에 넓게 깔린 온돌을 이용해 난방을 한다. 부엌의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온돌이 그 열을 받아 방바닥 전체로 이동시켜 방바닥 전체가 따뜻해지는 원리다. 온돌은 열의 지속력이 높아 한 번 불을 지피면 온기가 장시간 유지된다.

박서린 기자
presspsr18@pukyong.ac.kr
김다운 기자
presskdu19@pukyong.ac.kr



우리가 사랑한 영화

49 카트

자본주의 속으로 사라진 인권



개봉 : 2014. 11. 13
감독 : 부지영
출연 : 염정아, 문정희, 김영애 등
장르 : 드라마

'금수저'가 아닌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일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에서 더 나은 대우와 더 높은 급여를 받으려면 소위 말하는 고학력과 고스펙이 필요하다. 세상에 계급이 사라진 지 오래라고

하지만 사회에서는 여전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계급을 나누고 있다. 정규직 취업 문턱은 갈수록 높아지고 돈이 없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에 사람들은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으로라도 취업할 수밖에 없다.

영화 '카트'에서는 기업이 법을 어겨가며 비정규직을 해고하는데도 공권력이 기업의 횡포를 도와주는 기이한 현상을 볼 수 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는 상품보다 못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대학생이 미래에 겪게 될 수도 있는 인권 유린의 현장 또한 거침없이 보여준다.

영화 속 마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야간수당 없이 일하고 냉·난방이 되지 않는 탈의실에서 휴식 시간을 가진다. 그러던 어느 날, 마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의 아웃소싱으로 인해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받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성실히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준다는 말에 묵묵히 일해 왔지만, 하루아침에 용역 업체에 소속돼 하루살이 노동을 하게 될 위기에 처한다.

이들은 남은 계약 기간이라도 일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한다. 노동조합은

회사와 협상을 시도하지만 회사는 이들을 철저히 무시한다. 회사는 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가려 하자 노동조합 임원에게 따로 연락해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고 회유한다. 그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참여하면 다른 회사에 취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협박한다. 하지만 임원들은 회사의 제안을 거절하고 조합원 전체의 복직을 주장하며 파업에 돌입한다.

고객들은 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가자 "회사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왜 고객이 불편함을 느껴야 하느냐"고 불평한다. 이에 회사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고용해 대체 인력으로 빈자리를 충당하지만, 이는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것이기에 조합원들은 대체 인력이 일하지 못하도록 저지한다.

회사는 매출에 영향이 가자 곧바로 협상에 응하지만, 앵무새처럼 "접거를 풀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다. 회사는 이내 공권력을 투입해 조합원들을 마트에서 억지로 끌어내고 유치장에 가둔다. 그뿐만 아니라 임원들에게 소송을 걸어 파업 기간에 영업하지 못한 피해로 억 단위의 배상금을 요구한다. 또한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일부 조합원을 복직으로 회유하고 생계가 급

한 조합원들은 이러한 회사의 회유에 넘어간다. 급기야 계속되는 파업 중에 한 조합원이 "사람대접해 달라"며 소리친다. 회사에게 노동자는 제멋대로 주물러도 되는 기계 부품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런 영화 속 모습이 단지 영화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에 필자도 눈앞이 아득하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익을 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그 의미가 법을 어겨가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영화 속 기업처럼 노동자를 돈의 아래에 두고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자를 노예 취급하는 행위다. 또한 생존을 위해서는 노동이 필수적이므로 단순히 기업의 이윤만으로 노동을 계산해서는 안 된다. 자본주의 사회인 만큼 노동자를 한 인격체로서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영화 속 상황은 철저한 갑을관계로 이뤄진 우리 사회에서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이 영화를 봤으면 좋겠다.

김다운 기자
presskdu19@pukyong.ac.kr

포토 에세이



보호소의 아기 고양이들

위 사진은 작년 여름방학, 유기묘 보호소에서 일할 때 만난 고양이들의 모습이다. 유기묘가 구조되면 이곳 보호소로 온 뒤 입양 절차를 밟게 되는데, 대다수의 고양이는 새 주인을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 이날 나는 고양이들과 함께 장난치며 놀았지만, 마음이 아파 마냥 사랑스러운 마음만으로 바라볼 수가 없었다. 이들을 보며 나는 한 인간으로서 죄책감이 들었다.

이승욱(미생물학·2018)

학내알림

2019학년도 후기 수시 부경대학교 일반대학원 신입생 모집

- 모집학과 및 인원
 - 석사과정 : 석사 80개 학부(과), 6개 연구원, 약간 명
 - 박사과정 : 박사 81개 학부(과), 6개 연구원, 약간 명

○전형일정

구분	일자
인터넷 원서접수	2019. 6. 12. (수) 09:00~ 6. 17. (월) 18:00
전형료 납부	2019. 6. 12. (수) 09:00~ 6. 17. (월) 18:00
구비서류 제출	2019. 6. 12. (수) 09:00~ 6. 18. (화) 18:00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구술고사	2019. 6. 28. (금)~6. 29. (토), 학과별 실시
합격자 발표	2019. 7. 10. (수) 14:00 <예정>
합격자 등록	2019. 7. 31. (수)~8. 2. (금)

※ 자세한 사항은 부경대학교 홈페이지(www.pknu.ac.kr) 공지사항에서 '일반대학원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론

버스파업 논란, 누구를 위한 대중교통인가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추가적인 고용 없이도 장시간 노동을 통해 비용을 아낄 수 있었고, 노동자들은 추가 노동시간을 수당으로 전환해 임금 대체효과를 누렸다. 그러다 보니 10시간은 기본이고 긴 경우에는 12시간 연속 근무가 횡행할 정도로 노동조건이 열악했다. 이는 결국 고스란히 시민들과 노동자의 부담으로 돌아갔다. 긴 시간 노동으로 졸음운전에 따른 버스사고가 잇따르자 2018년 7월부터 그동안 예외였던 버스사업장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노동시간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에 실제 수입이 줄어든 버스노동조합에서 파업을 하기까지 이르렀다. 특히 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준공영제가 시행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준공영제 도입 역시 버스노조의 주된 요구 사항이 되기도 했다.

이런 배경에서 시작된 버스파업 논란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버스사업자와 노동조합 간의 협상을 통해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 우선 정부가 수도권 광역버스에 대해 정부 차원의 준공영제 도입을 약속했고, 주요 지방정부들 역시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임금인상에 합의했다. 울산 지역 등을 제외하고 당초 예고했던 15일 전에 협상이 마무리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실제로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이나 입장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준공영제 하에서 버스는 이용자의 요금

으로 운영되며 대중교통 이용자 외에도 시민들이 내는 세금의 지원을 받는다. 그렇기에 대중교통의 문제는 직접적으로 시민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현행 준공영제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버스사업자의 적자를 공공재정을 통해서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버스사업자가 공공재원을 제 용도에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개별 버스가 내는 운송수입과 운송비용을 다시 검토·조사하지 않고 지속해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운영비용을 부풀리거나 횡령을 하더라도 이를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 또 해당 사업자에 대한 인허가권이 돈을 지원해주는 광역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에 있기 때문에 각종 버스업체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현행 버스 준공영제는 사실상 재정지원을 해주는 민간사업에 가깝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1회용 교통비용이 해외보다 싼 편이지만 정기적인 이용을 하는 경우에는 훨씬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다양한 도시의 교통요금을 분석한 통계에서 중위 소득이나 최저임금에 맞춰서 따져보면 한국 교통 정기이용자는 훨씬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생활교통비용의 지역 현황에 따르면 자가용 이용자의 생활교통비용은 대중교통 이

용자들보다 더 낮게 측정됐다. 즉, 한국은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보다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이 손해가 적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조건에서 무조건 교통요금을 인상해서 버스사업자의 적자를 메꾸려는 중앙정부의 요청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버스파업을 앞두고 버스 노동조합이 요구한 중앙정부 재정지원이나 미시행 지역에서의 준공영제 도입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음에도 임금이 인상되자 파업은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다. 앞서 살펴본 현행 버스운영구조의 개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올해와 비슷한 일이 반복될 것이다. 요금으로 보나 재정으로 보나 대중교통의 부담을 전적으로 지고 있는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현행 준공영제 하에서 막대한 이윤을 챙기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재정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버스파업 논란이 생길 때마다 대중교통 이용으로 인해 가슴앓이 하기 싫다면 대중교통을 시민의 발로 환골탈태시키는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어설픈 사업자 지원제도만 늘리다간 시민들만 매번 '호구' 잡히기 딱 좋다. 해외 사례처럼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고, 점진적으로 대중교통을 공영제로 통합해나갈 필요가 있다. 지금이 바로 그것을 시작할 때다.

고함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예산 지원의 필요성

2019년 봄, 대한민국은 이례적인 미세먼지로 한바탕 흥역을 치렀다.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이 국내의 배출가스 때문임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선진국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협력과 더불어 21세기의 기계기술 발전은 환경 보전을 지향하는 추세다. 특히 세계의 여러 자동차 제조업체는 탄소배출과 각종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는 내연기관 엔진으로부터 생성된다. 내연기관이란 화석연료를 태워 에너지를 얻는 기관을 말한다. 물질 연소로서 에너지를 얻기에 이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등의 배기가스를 많이 배출한다.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내연기관과 전기모터를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대거 등장했다. 하지만 여전히 내연기관을 사용하고 배터리 충전 속도가 현저히 느리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그렇기에 자동차 회사들은 더 효율적인 친환경 자동차 개발에 노력을 쏟고 있고, 최근에는 배터리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가 각광받고 있다.

배터리 전기차는 배터리에 충전된 전력을 소비해 움직이는 자동차를 의미한다.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기에 환경오염의 문제가 전혀 없지만, 여전히 배터리 충전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 또한 배터리의

에너지밀도가 굉장히 낮아 무겁고 가격이 높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배터리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를 함께 개발하고 있다.

수소 전기차는 수소를 연료로 충전한다. 수소를 대기 중 산소와 결합시키고 그때 발생하는 전기로 자동차를 움직이기에 배기가스가 전혀 없으며 부산물이 자연으로 환원돼 친환경적이다. 수소 충전 시간도 내연기관 자동차의 주유 시간과 동일하고 에너지 효율성 또한 배터리 전기차에 비해 높다. 다만 초기 기술 투자와 인프라 구축에 많은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이렇듯 최근 기술 발전은 환경 보전을 지향한다. 하지만 기술 개발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 기업에서 선뜻 나서기 어렵고, 현재 수소 전기차의 출고가가 상당히 높아 시민들이 구매하기에 부담된다. 하지만 초기 비용 때문에 국내 내연기관 자동차 비중을 낮추지 못한다면 미래에 더 큰 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가 친환경 기술에 예산을 아끼지 않고 지원한다면 좁게는 우리나라의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넓게는 대한민국 기업이 수소 전기차 산업에서 국제적인 기술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이는 △국가경쟁력 △기술력 △국가적 위상 등 여러 방면에서 많은 이점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임성준(기계공학·2016)

부경대신문 뒤집기

앞으로 기대되는 부경대신문

부끄럽지만 필자는 이전까지 부경대신문의 존재를 몰랐다. 그래서 친구에게 처음 부경대신문을 읽어보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 "우리대학에 신문도 있어? 어디서 구할 수 있는데?"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놀랍게도 부경대신문은 필자가 매일 드나드는 건물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다. 가장 최근에 발행한 신문 한 부를 가져와서 찬찬히 읽어보니 우리대학에 대한 정보나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의 기사들이 많았다. 부경대신문은 인터넷으로 읽던 기사나 일반적인 신문보다 훨씬 쉽게 읽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필자는 지난 5월 20일(월)에 발행된 제 779호의 '캠퍼스 내 무분별한 흡연 행위 지속돼'이라는 기사를 읽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평소 필자 또한 캠퍼스 내 흡연이 심해 흡연자를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기사를 읽고 난 후 교내에 흡연 공간이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 평소 학우들이 많이 모여 흡연을 하던 공간이 실제로는 흡연구역이 아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학교에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빨리 알 수 있던 사실이었지만 이제서야 알게 된 게 부끄럽기도 했다.

또한, 부경대 신문에는 독자를 배려한 장치가 곳곳에 보였다. 신문을 읽다가 조금 지루해질 때 쯤 △쉬어가는 코너 △부경 만평 △애독자 퀴즈 등 독자를 위한



▲ 부경대신문 제779호 1면

컨텐츠가 보였다. 간단하지만 재미있는 퀴즈를 풀고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도 제공한다고 하니 다음 신문부터는 꼭 참여해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 '부경대신문'은 학교 신문이라 해서 우리대학의 소식만을 다루지 않았다. 현재 사회적 이슈나 정치·경제 분야 등 매우 다양한 주제들을 대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평소 글을 많이 읽지 않는 필자도 수월하게 기사들을 읽을 수 있었다. 접근성이 좋은 신문을 통해 학교의 소식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상식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교내 신문만의 아주 큰 이점이라 생각한다. 필자는 앞으로 나올 부경대신문이 매우 기대되며 다음 신문이 발행되면 꼭 읽을 것이다.

김지성(화학·2018)

사설

부경대학교 대나무숲의 건전함을 기대하며

우리대학 학생들이 사용하는 익명 SNS 커뮤니티인 대나무숲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삼국유사 속 경문왕의 설화에서 유래했다. 이 설화에서 대나무숲은 자신이 가진 비밀을 마음껏 외칠 수 있는 곳이다. 자세한 사연은 이렇다. 임금의 왕관을 만들던 복두장은 경문왕의 귀가 큰 것을 보고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했다. 하지만 사실을 누설하면 목숨을 앗아가겠다는 왕의 으름장 때문에 이야기하지 못했다. 그러다 자신이 죽을 날이 다가오자 근처의 대나무숲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 외쳤고 오랫동안 간직해온 비밀을 털어놓은 채 홀가분한 마음으로 죽었다. 하지만 그 후 그 대나무숲에서 바람이 불 때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소리가 울려 경문왕의 귀가 당나귀처럼 이상하게 크다는 사실을 모든 백성들이 알게 됐다.

인간이라면 비밀을 털어놓고 싶은 심리는 당연히 생길 수 있다. 하지만 필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털어놓지 못한다는 것에 관한 안타까움 외에 생김새로 인해 경문왕이 받았을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죽은 복두장은 비밀을 간직하는 동안의 괴로움을 완전히 씻은 채 죽었을까? 당나귀 귀라는 외모 비하를 받으며 살아야 했던 임금은 귀에 대한 콤플렉스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며 살았을까? 결국은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었다.

필자는 우리대학에도 대나무숲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자주 확인을 하게 됐다.

줄여서 대숲이라고 하는 커뮤니티에는 학생들의 진솔한 고민거리가 올라와 있다. 또한 기숙사의 환경 문제나 명확하고 깨끗하게 지출해야 할 학과 공금 사용에 대한 문제 등 학생들이 불만에 대해 직접 공론화한 내용도 있었다. 이런 점에서 대나무숲은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대나무숲은 글쓴이의 익명을 보장해 준다. 그로 인해 글의 필자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모호할 때가 있다. 익명의 탈을 쓰고 피해자인 척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글을 쓰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일말의 난투가 오고 간 뒤에 남은 건 가해자와 피해자의 같은 결과다. 소위 말하는 2차 피해를 둘 다 입기 때문이다. 경문왕 설화에서와 같이 대나무숲

또한 익명성을 보장해 주는 곳이지만 결국 둘 다 피해를 보게 된다.

그렇다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피해를 준 것은 무엇일까? 필자는 그것이 대나무숲의 바람이라 생각한다. 바람은 두 가지의 사전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압의 변화 또는 어떤 원인에 의해 일어나는 공기의 이동이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이뤄지기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이다.

사실관계도 불명확한 정보를 퍼 나르는 바람이 되어 누군가에게 2차 손해를 입히는 것이 옳을까? 내 주위의 모두가 행복하기를 기원하는 바람이 옳을까? 내가 놀리는 ‘좋아요’, ‘싫어요’와 내가 다는 댓글을 통해 나는 어떤 바람이 됐는지 스스로 반성해 보자.

변화의 시대에 진정한 상생의 의미를 생각해 볼 시간

요즘 언론에서 화두가 되는 토픽 중 하나는 상생이다. 특히 최근 차량 공유 시스템의 확대가 택시업계의 반발로 벽에 부딪히고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는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를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예외 중 하나로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를 규정했다. 따라서 IT 기업 카카오의 카풀서비스는 불법으로 규정됐던 우버와 다르게 합법이다. 그럼에도 택시업계의 반발에 직면해 2018년 12월 카카오의 카풀서비스가 무기한 연기됐다. 이와 같은 여세를 몰아 택시업계는 수도권권을 중심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차량 공유 서비스인 ‘타다’를 공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생이라는 명분으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거부하는 상황은 비단 택시업계만이 아니다. 지난 5월 3일(금) 울산에서 열린 ‘미래자동차 고용 토론회’에서 국내 굴지 자동차기업의 노조위원장은 전기자동차를 ‘제왕’이라고 언급했다. 전기자동차 확산으로 인해 자동차산업의 인력감축이 생길 것을 우려한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내 자동차 공장은 1996년 현대자동차 아산공장과 당시 삼성자동차였던 르노삼성자동차의 부산공장 완공 이후 아직까지 신설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자동차 생산은 2011년 465만대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8년에는 402만대 수준으로 축소됐다. 2006년 366만대로 자동차 생산의 정점을 기록하고 2018년 227만대 수준으로 급격

하게 축소된 프랑스의 상황이 국내에서 재현될 수도 있다.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기존 산업 인력 구조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이에 따른 반발은 항상 존재해왔다. 산업혁명으로 도입된 신기술이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공장 내 기계를 파괴했던 19세기 초 ‘러다이트 운동’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다른 사례로 산업혁명의 산물로 탄생한 증기자동차가 마부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1865년 영국에서 기관차량 조례를 제정한 것을 들 수 있다. 본 조례에 따르면 증기자동차는 교외에서 시속 4마일, 시내에서 2마일로 속도가 제한됐다. 기수는 낮에는 붉은 깃발, 밤에는 붉은 등을 소지하고 사람의 보행 속도를 유지하며 상대측 말의 기수에게 자동차의 접근

을 예고해야 했다. 당시 증기자동차는 시속 30마일까지 달릴 수 있었는데 이런 규제도 영국 자동차산업은 쇠퇴했고 자동차산업의 주도권은 프랑스·독일·미국으로 이전됐다.

이와 같은 혁신에 대한 규제는 결국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빼앗는 악순환으로 연결된다. 각종 규제와 기존 업계 및 업계 종사자들의 저항으로 국내의 혁신이 가로막히는 것이 비일비재한 상황은 결국 미래세대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물론 혁신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해결책 또한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상생이라는 담론으로 혁신을 막고 있는 상황은 결국 세대를 통한 발전의 상생을 이루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애.독.자.퀴.즈

부경대신문 이번 호도 열심히 보셨나요? 부경대신문을 꼼꼼히 읽어보셨다면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정답은 presssyj@pukyong.ac.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메일 제목에 정답을 적어주시고, 내용에는 학과와 학번, 성명, 연락처를 적어주세요. 추첨 후 소정의 상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당첨자는 2주 이내에 학생증을 들고 대연캠퍼스 나비센터(B12/신 학생회관) 3층 부경대신문사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문제를 푸는 방법은 각 문항에 해당하는 글자를 찾아 아래 표에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아래 문항을 모두 지우고 남은 글자가 정답입니다.

장	소	보	희	전	낙	파	동	연
건	수	강	종	수	진	견	구	도
벽	안	배	이	점	돌	료	호	
아	의	생	지	강	소	검	년	

- 활성화의 경우 여성용품·의약품 지급 등을 학생들에게 홍보하며 이용자 수를 늘리고 있다.
- 이란 학교와 같은 연구기관에서 연구자의 재충전 기회와 자유로운 연구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1년 정도씩 주는 휴가다.
- 우리대학은 2018년 4월, 외벽의 마감재가 벽돌 혹은 타일인 건물 32개 동을 대상으로 ○○○○ 용역을 실시했다.
- 이에 학교 측은 사고 예방의 일환으로 ○○○ 가수 섭외에 대해 금지 조치를 내렸다.
- 어떤 지역에서는 ○○○가 ‘나불’이라 불린다고 합니다.
- 이란 다수결 사회에서 다수의 의견에 들지 못해 폐기된 의견을 말한다.
- 기존의 패션에는 치마와 바지에서부터 젠더의 ○○○이 있기 때문이다.
- 국가는 많은 전란을 거처며 존재하고, 모든 국가는 그 전란에서 ○○○된 자를 추모한다.
- 다부동 전투는 그 당시 ○○○ 전선의 치열했던 전투 중 하나다.
- 황령산터널 ○○○는 총 길이 1,285m에 약 10m의 폭과 높이로 지어질 예정이었다.

※ 지난호 정답 : 현충일

당첨자

- 김하민 (융합디스플레이공·2017)
- 최정은 (컴퓨터공·2017)

2019.6.24-10.8

부경문학상

응모대상 : 부경대학교 학부(과) 재학생 (대학원생, 휴학생 제외)

응모분야 : 시, 단편소설, 수필, 서평

응모방법 : presssyj@pukyong.ac.kr
(E-mail 접수만 가능, 중복지원 가능)

응모기간 : 2019.6.24(월) ~ 2019.10.8(화)
(※응모기간은 기타 행사 등 언론사 사정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원고 파일 제목을 학과, 학번, 본인 이름으로 저장하여 첨부파일 형태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예: ○○학과 201900000부경인)
- 메일 제목에는 응모분야(예:단편소설)를 표기해주시오.
- 메일 내용에는 학과, 학번, 이름과 함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입해주시오.
- 반드시 본인이 쓴 원고만 응모 가능합니다.
- 동일 원고를 유사 대회 등에 중복 투고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며 수상 이후 확인될 경우 무효처리 됩니다.
- 당선작은 부경대신문에 지면화 될 수도 있습니다.

문의 :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신 학생회관(나비센터/B12) 3층 부경대신문사
presssyj@pukyong.ac.kr / 010-8961-5922